현대불교

제 77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2월 24일(음력 1월 11일) 수요일(주간)





환경 훼손하는 불사 '그만'

교불련, '사찰환경 개선 대안모색' 세미나… "불자 사찰환경 교육 시급"

2월 15일 SBS 뉴스에서는 부산 기장의 한 사찰이 계곡 암벽을 뚫어 동굴 법당을 만들고 계곡까지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사례가 보도됐다.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도 8각10층세존사리탑과 사적비 건립 등 잦은 불사로 도량의 균형이 틀어진 지 오래다.

사패산 · 천성산 등부터 최근 4대강 사업 반대까지 자연 및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균형을 잃은 불사나 사찰에 의한 환경훼손 사례가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 '중창불사' '대작불사'라 불리며 성행하는 불사가 사찰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외국사찰 환경 비교를 통한 국내 사찰환경개선의 대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홍광표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 '사찰환경 개선방안 연구'에서 "무분별한 불사가 사찰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를 위해 홍 소장은 1월 19일~2월 2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새로운 건물의 건축(16.1%)과 진입로와 마당(15%), 차량도로(12.8%) 등을 사찰 경내의 환경훼손 유형으로 지목했다. 사찰에 지어진 석조물의 문제점으로는 분위기나 격식에 맞지 않는 석등이나 탑(25%), 과거와는 다르게 다듬은 석재(22.2%), 벤치 등 휴게시설(17.2%)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사찰환경 훼손이 사찰에 주석하는 스님, 종무원(27.8%)과 사찰 신도(19.4%), 관광객(14.4%) 순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홍 소장은 "설문결과는 탑과 석등이 신앙의 대상이라고는 해도 사찰에 전승된 형태가 아닌 것은 환경훼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단과 석단도 전통적이지 않으면 환경훼손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홍광표 소장은 "중창불사를 통해 새로운 건축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 경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현재 전통사찰에서는 석축만 변경하려해도 현상변경 심의가 필요한데 이런 법규만 잘 지켜도 사찰환경 훼손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계의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낮은 인식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설문 결과 '사찰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38.9%였으나 '문제가 없다'(23.7%), '모르겠다'(21.7%), '관심없다'(8.3%) 등의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며 "불자들조차도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관심이 낮은 만큼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의 활성화가 사찰환경 훼손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홍 교수는 "템플스테이 실시 사찰마다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과 화장실을 신축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있다"면서 "전통사찰의 수용용량을 초과한 무분별한 시설물 증축이 사찰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준 우석대 교수도 해인사 구광루를 예로 들며 잘못된 불사에 의한 사찰환경 훼손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해인사 구광루는 과거 누하진입 공간이었으나 불사를 통해 좌우 계단진입형태로 바뀌어 옛스러움이 사라졌다"며 "누하진입형태인 영주 부석사 안양루가 주는 경관미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 설명했다.

정기호 성균관대 교수는 "사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철거와 환원'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며 "마구잡이로 덮어진 콘트리트 도로포장과 경계부를 원래의 모습 또는 자연스러운 마감으로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스님과 종무원부터 사찰환경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불사에 앞서 전문가 조언을 구하거나, 조계종 총무원에 (가칭)불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불사 전 심의를 통해 사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마경>에서는 "곧은 마음이 도량이고 곧은 마음이 정토"라고 했다. 모두의 마음에 드는 도량을 가꾸기 위해서는 "잘못된 불사는 부처님 도량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의식부터 갖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 해의 서원을 담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정월 초사흘인 2월 16일부터 전국의 사찰에서 정초기도법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한 해의 소망과 서원을 부처님 앞에서 합장 발원했다. 17일 서울 조계사 '정초 7일 기도'에 참석한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박재완 기자

15대 총무원장 선출 천태종 3월 28일

천태종이 3월 28일 제15대 총무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종정중심제인 천태종의 총무원장 선출은 3월 중 종정 도용 스님의 지명 이후 종의회 인준과 임명식으로 진행된다.

제15대 총무원장에는 2006년 3월 전 총무원장 운덕 스님의 사퇴 이후 잔여 임기 3년을 성만한 현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東大 약대 신설 1차 심사 통과

교과부 통보… 26일 최종 발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증원을 앞두고 동국대 등 19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약대 신설 대학 선정을 위한 1차 심사 결과를 18일 공개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차 심사에는 경기 지역 9개 신청대학 중 동국대를 비롯한 가톨릭대 캠퍼스, 아주대 차의과대, 한양대 컴퍼스 등 5개 대학이 통과했다. 또, 인천 지역 3개 대학, 충남 지역 4개 대학, 전남 지역 3개 대학, 경남 지역 2개 대학, 대구 지역 2개 대학 등도 각각 통과했다.

대학들은 이번 증원에서 경기 지역 최대 3곳, 나머지 지역에서 최대 1~2곳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과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9개 대학을 22~24일 현장실사 해 25일 최종심사, 26일 최종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심사는 교육 · 연구여건 및 역량,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 분야 발전 가능성, 약대 운영계획, 교수 및 학생 충원 계획, 교육 · 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 등 5개 영역별로 나뉘어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조동섭 기자

'승려 사유재산 령' 내부 반발로 연기

조계종이 추진 중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승단 내부의 반발로 연기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22일 예정된 종무회의에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 연기나 보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1월 21일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제정)'을 공포한 이래 문의와 항의전화가 적지 않았다"며 종단 구성원으로부터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사항을 해소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신계사 성지순례 '위기'

18일 실무접촉 통일부 불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 성과물 중 하나인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조계종은 19일 "신계사 성지순례의 실무접촉이 18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통일부의 불허 방침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경색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것으로 평가받아왔던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는 3월 경 5000여명 규모의 108산사순례단이 3차에 걸쳐 봉행되는 안이 추진돼 구체적인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통일부의 신계사 성지순례 실무접촉 불허에는 자승 스님의 방북 이후 남북 당국간 진행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의 결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일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3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3대 선결과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6 현장-아이티 ▶14 선지식-종림 스님 ▶8 인터뷰-보광 스님 ▶23 강의실-김형효

G20 Seoul Summit

THE YEONGSANJAE CEREMONY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20 정상회의

2010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영산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2010. 3. 11 (목) 오후 2시

주관 : 2010영산재 봉행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초대의 글



불. 법. 승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지절에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봉행합니다.

'G-20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국제적인 회의이고 단군 이래 최고의 경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의 의장국 자격에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태고종의 총본산 봉원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관리하는 '영산재'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10영산재"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예술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법요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2010년 2월

2010영산재봉행위원장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박인공** 합장

전국신도회장 인사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는 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G-20정상회의"의 유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우뚝 서게 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합장

2010영산재봉행위원회(02-739-345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02-392-3007), 태고종전국신도회(02-720-3133)

社說

운영 주체 없는 국제센터

조계종은 2월 18일 국제템플스테이센터 상량식을 서울 신정동 현장에서 거행했다. 센터는 6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문을 연 공주의 전통불교문화원에 이어 대형 건축불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로써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나라의 전통의 정서가 흠뻑 스며있는 하드웨어를 갖추게 되었다.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걱정거리가 있음을 감출 수 없다.

개원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운영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국제템플스테이센터를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간화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발우공양과 다도 등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딘지 미덥지 못하다. 8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외형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답답하다. 전국의 104개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도 23개 사찰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를 하는 곳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으니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기존의 템플스테이 사찰과 수행센터와 무엇이 다른가 이다. 외국인 전용이 되던지, 새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범 운영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던지 그 특성이 분명해야 한다. 자칫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이 된다면 낭패스러운 일이다.

성지순례 막는 MB정부의 빗장

3월로 예정됐던 금강산 신계사 순례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통일부가 2월 18일로 예정됐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간의 실무 접촉을 불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불교교류를 활발히 펼치기 위해 의견을 나눴으며, 그 일환으로 남측의 불자들이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를 3월에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여름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닫혔던 민간교류도 서서히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통일부는 실무 접촉을 불허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대북정책 상 설명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상황이 있어서 보류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잇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도 대북 완화로 선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민간교류까지 빗장을 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답답하다. 이후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있을 텐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다양한 대북 채널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도 전략상 필요하다.



불자 세상보기

유승무
중앙증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사회양극화와 기본소득

최근 종단안팎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종책방향 중 가장 획기적인 것 중의 하나로 화쟁위원회 설치를 꼽는다. 그간 사회변화에 둔감했던 종단의 태도를 상기하면 '획기적'이란 평가가 과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갈등이나 사회양극화를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말찬치에 덩달아 춤을 추고 있다는 비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화쟁과 유사한 계열의 언어, 즉 소통, 화합, 사회통합 등과 같은 어휘들이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심지어 종교갈등 등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통합이란 말은 사회갈등을 전제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사회의 갈등 및 양극화의 현실이 정부의 말찬치에 대해 한가한 담론을 펼칠 정도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의 진단에 따르면, 최근 한국사회의 빈곤층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중산층 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명을 넘었다.

실감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생산이나 고용은 물론 교육, 주거, 소비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사회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일종의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지난 김대중정부가 이른바 '생산적 복지 정책'을 통하여 그리고 노무현정부가 '참여 복지 정책'을 통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도 양극화 문제의 구조적 속성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문제의 해결이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 즉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말찬치가 무용지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이 이른바 '기본소득(basic income)' 개념이다. 일찍이 저명한 경제인류학자 앙드레 고르는,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같은 양의 생산을 위해 갈수록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요구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소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과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례를 우리는 기본소득을 전격적으로 제도화한 미국의 알래스카 주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소득이 26%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소득은 12%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소득이 7% 증가에 그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소득이 무려 28%나 증가했다. 이는,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의 제도화로 인해 미국의 주들 가운데 가장 평등주의적인 주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빈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역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정확하게 부합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인연과 악연은 하나인 듯

2월의 테마-인연

"아침의 첫 햇살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브라만은 싯다르타의 무릎이 소리 없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싯다르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두 눈은 아득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다. 싯다르타는 이미 자기의 곁에, 고향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싯다르타는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1922년에 발표된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는 부처와 이름이 같은 청년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의 일대기를 통해 보여준다.

출가한 싯다르타는 성자 고오타마 붓다의 설법으로도 방탕한 속세에서의 생활로도 해탈에 이를 수 없어 자포자기한다. 그러나 자살을 결심한 강가에서 신비한 소리 '옴'을 듣게 되고 뱃사공 바수데바의 조수가 된다. 몇 해 뒤 젊은 시절의 여인 카마라와 재회하지만 그녀는 죽고 싯다르타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어린 싯다르타를 얻는다.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며 고통과 번뇌를 느끼지만 그는 이마저도 기꺼워한다. 하지만 도시를 동경한 아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치고 싯다르타는 상실감에 괴로워한다. 젊었을 적, 아버지를 뿌리치고 구도자의 길을 나선 자신처럼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난 아들을 뒤쫓던 싯다르타는 모든 것이 윤회(輪回)임을 느끼고 강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일생동안 숱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산다. 그 안에는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좋은 인연이 있고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악연도 있다. 이상한 것은 바로 이 상처다. 나이가 들어도 그 아픔에는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혈액형과 별자리를 따지고 궁합과 관상을 본다. 나이 한 살을 더 먹을수록 경험이란 이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들어 타인을 저울질한다. 어떻게든 좋은 인연을 가려내겠다는 심산이지만 사람살이의 이런 모습은 되레 애처롭고 씁쓸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노력 끝에 내게 꼭 맞는 상사와 직장동료, 배우자를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런 짝을 찾는다는 것은 실로 얼마나 어려운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리운 이나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인연이나 악연이 따로 이지 않고 하나인 듯하다. 소설 속의 싯다르타는 아들로부터 버림받고 고통스러워한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던 이가 그에게 가장 큰 번뇌와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사랑이 깊어서, 더없이 큰 기대 때문에 내게 고통과 슬픔이었던 이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결국 나는 그들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힘겨웠다. 그러니 영원히 좋은, 혹은 영원히 끔찍한 인연이란 것이 있을까. 가물거리는 기억 속의 그들은 이제 그저 보고 싶은 얼굴, 지나가버린 인연일 뿐이다.

싯다르타는 아들을 떠나보낸 후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망마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아를 초극한 완성자가 된다.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좋고 나쁨으로 구별하지 않고 만남과 헤어짐마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내게도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길고 먼 훗날이어도 말이다.



이상경
시나리오 작가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광교육원 불교강좌

불광교육원은 불교 전문강좌를 분기별로 개강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세분화하여 전공하신 선생님을 초빙하여 불광불교대학·대학원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광불교대학·대학원
(2년제 4학기)

2년과정의 불교대학과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아침반 (10:00 ~ 12:00), 저녁반 (7:30 ~ 9:30)
• 수업일시 : 대학(목) 대학원(월), 매학기 16주 강의
• 입 학 식 : 3월 7일(일)

각묵 스님과 함께 읽는 초기불전 강독 (10주)

부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니까야' 경전에서 경구를 발췌하여 읽어 나갑니다. 초기불전을 번역하고 계신 각묵 스님과 함께 합니다.

• 개 강 일 : 아침반 3월 17일(수) / 저녁반 3월 16일(화)
• 동 참 금 : 7만원(교재비별도)

반야·중관사상 (10주)
아침반 : 김영진 선생님(인하대)
저녁반 : 한중광 선생님(동국대)
개강일 : 3월 8일(월)
동참금 : 7만원(교재비별도)

대승기신론 (16주)
아침반 : 승원스님 (중앙승가대)
저녁반 : 석길암 선생님(금강대)
개강일 : 3월 11일(목)
동참금 : 7만원(교재비별도)

유식사상 (10주)
강 의 : 목경찬 선생님(불광불교대학 전임강사)
개강일 : 5월 17일(월, 아침반·저녁반)
동참금 : 7만원(교재비별도)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 02)417-2551 www.bulkwangsa.org

‘사공’ 없는 국제템플스테이센터

18일 상량식, 운영계획 없어… 부지 제공한 조계사 부채 상환도 과제

한국불교 세계화의 대서원 아래 착공해 3년여의 산고를 겪은 국제템플스테이센터. 2000만 불자들의 염원인 국제템플스테이센터 완공이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운영주체 및 구체적 운영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은 2월 18일 서울 신정동 불사현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주요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템플스테이센터(이하 센터) 상량식을 봉행했다.

2008년 11월 첫 삽을 뜬 센터는 상량식에서 지상 7층 · 지하 3층, 동시수용인원 800여명 · 상주인원 100여 명 규모의 웅대한 자태를 드러냈다.

센터에는 국고지원금 190억 원을 포함해 400여 억 원이 투입됐다.

한국형 플럼빌리지를 표방한 센터는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수도권포교 활성화의 핵심시설로, 향후 건립될 각 지역명상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웅대한 시설 운영 비전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현재까지 운영주체 확립 등 내부작업이 미진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센터 운영팀 등을 구성하기 위해 2월초 열린 종무회의에서 총무부 · 재무부 · 기획실 · 불교문화사업단의 관련 4개부처로 구성된 TF팀(팀장 정형근 · 재무회계팀장)을 발족했다.



서울 신정동 불사현장에서 봉행된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집행부(왼쪽)와 조계사 신도 등 불사에 기여한 종도들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서는 “TF팀에서 운영계획 등 초안이 마련돼도 운영총책임자가 정해지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운영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세부적인 운영계획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TF팀 한 관계자는 “현재 운영계획은 없다.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까지는 TF팀이 기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센터 운영과정에 건립에 기여한 종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건립부지를 제공한 조계사와의 문제다.

국제템플스테이센터 부지는 조계사 소유로 2007년 11월 부지선정 과정부터 진통을 겪었다. 조계사는 1992년부터 신도들이 떡 등을 팔아 모은 품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약 35억 원을 들여 현재 부지를 매입했다. 조계사 내부에서 부설 포교당 등을 활용한 부채 상환과 매각을 통한 조계사 성역화 자금마련 등의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시가 160억 원의 부지를 담보로 총무원과 불교문화사업단이 국고지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하면서, 이 땅은 특별한 공식논의 없이 국제템플스테이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조계사 신도들의 반발이 일었고, 조계사 주지겸 당시 총무부장이던 원학 스님은 “센터 완공 후 조계사 포교당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총무원장 스님에게 이러한 뜻을 전했다. 신도회가 운영 일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발을 무마시켰다.

현재 국제템플스테이센터 부지로 인해 조계사의 몫이 된 부채는 이자 포함 70여 억원에 달한다. 조계사 성역화 사업으로 2009년 9월 매입한 삼오모텔 관련 부채까지 고려한다면 조계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조계사 신도회 관계자는 “종단과 조계사의 부채탕감과 운영 논의는 없었다. 6월 중 30억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도들에게 영구위패, 불사를 위한 권선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글=노덕현 · 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죽육기 145,000
☎ 02)2004-8216

봉원사·선암사 맞바꾸기?

조 · 태 소유권 분쟁 사찰 선암사 등 4곳… 해법에 관심

최근 조계종-태고종간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이 50여 년 만에 해결됐다.(본지 제771호 보도) 봉원사 건은 두 종단간 자율적 해결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안을 양 측이 수용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계종-태고종이 각각 내부 잡음을 해소하고 ‘조정안 수용’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에는 교계의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촌 봉원사건 같은 해소가 조계종-태고종간 다른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조 · 태 분쟁 중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사찰은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서울 백련사, 관악산 성주암, 영종도 용궁사 등 4곳 정도이다. 한때 분규사찰은 10여 곳이 넘기도 했으나 수십년간 분규를 거듭한 끝에 법원 판결을 통해 해소 중이다.

조계종-태고종의 분쟁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로 촉발된 비구-대처승간 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갈등을 조계종은 ‘정화운동’ ‘정화불사’라 부르고, 태고종은 ‘법난’ ‘분규’ ‘정화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담화로 해방 직후 전체 승려 중 90% 이상이 대처승이었던 것에 비해 200~6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비구승들은 정부의 엄호 아래 다수의 전통사찰을 접수했다.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비구 종단인 조계종은 우선적으로 주요사찰을 조계종 소유로 등록했다. 분규사찰은 대개 이때 누락된 사찰이었다.

이들 사찰을 조계종은 ‘미입주 사찰’이라 부르며, 삼보정재를 지키고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조계종 소유로 삼고자 했다. 2004년 완주 봉서사 사태가 보여주듯 “되찾겠다”는 조계종과 “지킨다”는 태고종, 양 측 모두 물리적 충돌도 서슴치 않았다.

조계종이 강화 보문사 말사였다고 주장하는 영종도 용궁사와 서울 일원동 불국사, 관악산 성주암 모두 비슷한 경우다.

순천 선암사는 법적으로는 조계종 소유지만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정화불사’를 거치면서 조계종 소유로 등록됐지만 태고종은 계속해서 점유했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법정 공방 끝에 선암사는 조계종 소유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태고종의 계속된 점유 속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순천시장이 선암사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선후관계를 떠나 조계종이 일부 사찰을 재산 등록에서 누락시키거나, 법적 논란 속에도 태고종이 점유를 그치지 않은 사찰은 분규사찰이 됐다. 하지만 태고종은 분규사찰이라는 말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조계종 총무원은 현재 미입주 사찰 현황 등을 재정리하고 필요시 종법 등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태고종은 분규사찰에 대한 정리작업 조차 전무하다.

태고종 종무조정실장 도각 스님은 “태고종은 ‘분규사찰’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각 스님은 “봉원사건 해결을 위해 태고종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태고종단 본산인 순천 선암사건에서는 조계종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차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계종도 선암사건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태고종이 총본산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조계종도 선암사가 근현대에 교구본사였던 사격(寺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식 부천대 교수는 “1994년 개혁 당시 조계종이 내부문제로 신경을 쓰지 못하자 태고종은 1998년 선암사가 총본산임을 표방하며 승가대학을 설치하고 종단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등 실제 점유율을 높여 왔다”며 “분규사찰의 최근 판결은 점유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교계 일각에서 “조계종-태고종이 신촌 봉원사와 순천 봉암사건을 서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죽비와 목탁

천년 내다보는 계획 세워야

종로는 가장 서울다운 곳이지만 서울과 가장 다른 곳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종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서울의 변화가 비켜간 옛 풍이 살아있다.

종로에서도 인사동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평일에도 인사동 길에는 떡과 다과를 비롯한 한국음식을 맛보고, 옛 물건을 보며 추억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사람들은 전통과 과거가 살아있기에 인사동을 찾는 것이다.

인사동을 찾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곳 중 한곳이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다.

하지만 조계사를 찾은 사람 대부분이 놀라는 점이 하나 있다. 불교전통과 연관시키기 힘든 주변 건물들 때문이다.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면서도 그 위상에 비해 사격이 왜소하다. 조계사가 최근 들어 전통가람(伽藍)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들은 기존 조계사의 풍취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리로 지어진 한국불교역사문과 기념관, 당초 취지였던 목탁 형상과는 거리가 먼 전법회관, 직선위주의 기하학적 구조의 템플스테이 정보센터는 옛 풍을 간직한 대웅전을 어색하게 만든다.

조계종은 오래 전부터 조계사 성역화 사업을 표방하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부조화가 나타날까.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집행부 교체 및 주지 인사에 따라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월 초 원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지금까지와 달리 보다 큰 그림에서 성역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 등과 협의해 인사동 등과 연계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자들만의 성역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계사를 위해서는 ‘내 입기에 이뤄야 한다’는 마음의 성역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 100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마련해 하나씩 실천할 때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현대화된 영산재 3월 11일 시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가 현대화 · 대중화돼 역대 최대 규모로 봉행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2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11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2010영산재’에서 현대화 · 대중화된 영산재가 시연된다”고 밝혔다.

‘2010영산재’는 전통 영산재에 내재된 종교성 등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예술성 등을 극대화해 각색됐다. 시연 시간도 전통 영산재의 절반인 1시간 여로 단축시켜 공연의 짜임새를 더하고, 대중의 지루함을 덜도록 했다.

태고종 종무조정실장 도각 스님은 “종교의식인 영산재의 문화적 예술성 부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식전 행사로 오후 1시 30분부터 영산재 관련 영상물이 방영된다. 2~3시 새로 각색된 영산재가 시연되고, 3시부터는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기원법회 후에는 국악 등 축하공연이 이어져 참가 대중의 흥을 북돋게 된다. 또, 행사 중에는 태고종 유윤순 전국신도회장 취임식을 마련해 태고종단 화합과 중흥발전을 도모했다. 조동섭 기자

김성광 목사 막말 종평위 유감표명

목사가 설교시간에 불교에 대한 근거 없는 막말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는 2월 12일 설교에서 “스님에게 목탁을 왜 두들기냐고 물었더니 졸릴까봐 두드린다더라. 불교경전은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귀신들만 나온다” 등의 불교 폄하 발언을 했다.

이에 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 · 손안식)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감표명 의견서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모델 : 前 세계 〝미세스 진〟(촬영 : 방필석 법사)

★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니 ★

신생아 작명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갈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739-82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법사

주역 개인지도
운명을 바꾸는 아호.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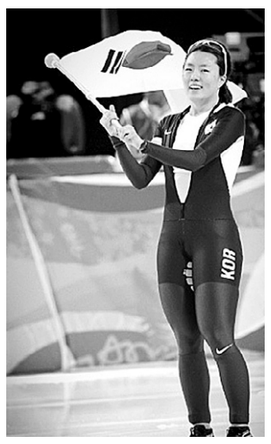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3회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승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耕當問奴(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일이 잘 안풀릴때 개명 하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모태범·이상화 불심도 '금메달'

동갑내기 은석초교 출신… 시합 전 기도







이상화(위 · 왼쪽)와 모태범 선수.

출처=이상화 선수 미니홈피 · 은석초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 금메달을 딴 모태범 · 이상화 선수가 종립학교 동국대 산하 은석초교 출신으로 신심 돈독한 불자인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1989년 동갑내기인 모태범 선수와 이상화 선수는 은석초교 38회 졸업 동기이다.

모태범 선수는 은석초 1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해, 2007년 국가대표팀에 첫 발탁됐다. 모 선수는 2006 · 2007년 세계주니어 선수권에서 스피드스케이팅 500m 부문에서 1위에 오른데 이어, 지난해 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1000 · 1500m에서 2관왕에 오르며 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을 키워왔다.

이상화 선수도 은석초 재학시절 스케이팅을 시작했다. 2004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 선수는 지난해 가을 열린 8차례의 월드컵 경기에서 6번이나 금메달을 목에 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유망주로 인정받아왔다.

두 선수는 뛰어난 스피드스케이팅 실력 만큼이나 불심 또한 깊다.

가족 모두가 불자로 봉선사 신도인 모태범 선수를 비롯해, 정토심(淨土心)이란 법명을 가진 이상화 선수는 매 시합 전 향을 펴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석초교 김한기 교장은 "한국이 동계올림픽 출전 이래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딴 값진 금메달의 주인공이 모두 은석초교 졸업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두 선수가 남은 종목에서도 선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8일 동계올림픽에서 한국대표팀에 축전을 보냈다. 스님은 축전에서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500m를 동반 우승한 모태범, 이상화 선수와 안타깝게도 결승 문턱에서 좌절해야만 했던 쇼트트랙의 성시백, 이호석 선수 등 불자 선수들의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조동섭 기자

"종단 바른 미래 위해 진력"

태고종 중앙사정원장 운곡 스님 취임 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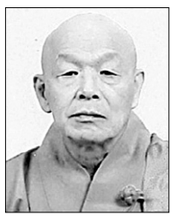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믿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종단 미래를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정신으로 진력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8일 제101회 중앙종회에서 중앙사정원장에 선임된 운곡 스님(홍천 안양사 주지 · 사진)은 경인년 새해를 맞아 사정원이 태고종의 위상 회복,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운곡 스님은 중앙사정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종단 위상 회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종헌종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스님은 "엄격한 삼권분립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지만 종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종헌종법을 토대로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자세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사정원은 지방교구사정원의 징계심판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의 심리, 사찰운영 또는 승려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종무기관의 사무처리에 불복, 행정소원을 청구한 사건의 심리 등을 관장한다.



지난해 중앙종회 스님들은 운곡 스님을 지역안배, 주변의 신망, 업무수행능력 등에 적격인사라 판단돼 중앙사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운곡 스님은 종헌종법 등의 절차나 적용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종도 간 잘못이 있다 해도,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며 "절차나 법규적용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엄밀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곡 스님은 종단의 무너진 위계질서, 엄청난 채무 해결 등의 상황을 "격랑이 이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일엽편주와 같은 형국"이라 비유했다.

스님은 "부채수습대책위원회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본질이 호도된 채 방책만 강구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채무 발생 원인과 절차 정당성 책임소재 등이 규명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빚을 질 때처럼 독단과 편법, 얕은 꾀로 얼렁뚱땅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원 소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걱정도 하고, 한편에서는 트집도 잡고 그럽니다만 그럴수록 더 각오를 합니다. 예부터 사정(司正)에는 추상(秋霜)이라는 말이 따라 다녔습니다. 가을 서릿발을 말하는데, 저는 서릿발이되 날선 서릿발이 아니라 투명한 서릿발이 되고자 합니다. 공명정대해야 파사현정(破邪顯正)합니다. 종단 미래를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정신으로 진력하겠습니다. 종단 바른 모양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감사할 따름입니다."

운곡 스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임자들이 직분을 똑바로 수행하는 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본래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4대강 저지 심포지움 등 대안 제시

종교·시민사회단체·야당 한자리서 "4대강 저지" 뜻 모아

개발논리로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세종시 등 문제에 파묻혀 여론의 주변으로 물러난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 시민사회 · 야당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 역량을 결집해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눈길을 끈다.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및생명의강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2월 1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년 4대강 보전 활동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한 우이령 보존회 김기준 운영위원은 "지율 스님이 낙동강 순례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보고 간 사람들은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며 국민 역량 결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집중된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 초심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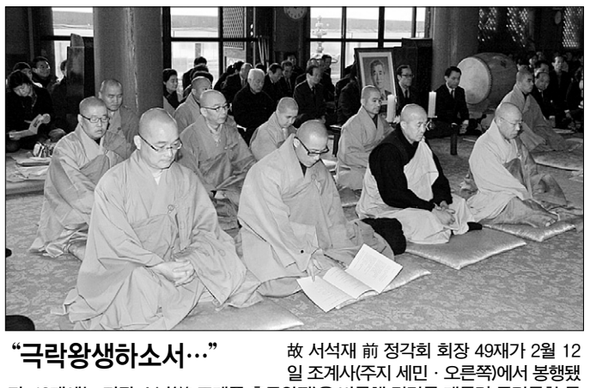
양길승 녹색병원장은 "세종시 블랙홀에 빠져서 4대강 문제가 등한시 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며 "지금까지 문턱에서 맴도는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

다른 단체에 비해 불교계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 반대 대응 계획으로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2월 23일 여주 신륵사)△전국사찰 대상 환경법회(3~10월) △불교적 해법을 위한 심포지움(3월 4일) △강 살리기 기도회(4월 10일)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3월 열리는 심포지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계획들을 행동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적 해법을 위한 심포지움은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3월 4일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박선주 기자



"극락왕생하소서…" 故 서석재 前 정각회 회장 49재가 2월 12일 조계사(주지 세민 · 오른쪽)에서 봉행됐다. 49재에는 지관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 최병국 국회 정각회장,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故 서석재 의원은 제11대 국회의원, 1994년 총무처 장관, 1996년에는 국회 정각회장으로 활동을 통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군종장교 파송비율 조정, 불교방송 전국 송출 등 불교관련 법안과 정책 수립에 앞장섰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제공=조계사

100字 뉴스

올 봉축표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 결정됐다.

이번 봉축표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자비(慈悲)와 상생(相生)으로 모두 함께 정토세상을 이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공모를 실시해 332건(173명 응모)의 응모작을 심사했다. 이번 표어는 서울시 서대문구 백정아 불자가 응모한 것이다.

조계종 17일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7일 오전 9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에서 경인년 새해 불교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 종무원이 일심으로 매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자승 스님은 덕담에서 "눈이 없는 사람은 평생 눈뜨기를 바라지만 건강한 사람은 이미 갖춰있기 때문에 평생 남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이라며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 불교중흥을 못 이룰 이유가 없다"고 격려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덕담에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마음으로 임하면 소통과 화합이 잘 이뤄질 것"이라며 각 종무원들의 적극적인 종무활동을 당부했다.

조계종 사회부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가 2010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사회현안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공모사업은 통일 · 국제 · 환경 · 종교교류 · 사회통합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각 우수사업에는 총 4500만원의 사업지원금이 지원되며 사업내용은 종단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2월 16일~ 3월 31일 접수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 (02)2011-1820 bullee@buddhism.or.kr

일산불교병원 아름다운동행에 아이티 성금

동국대일산불교병원(원장 이진호)과 서울 천축사(주지 유방)는 2월 18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에 각 680, 800만원의 아이티 구호기금을 전달하고 국내외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상시구호시스템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대불총 등 보수단체 조계종 방북 규탄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이하 대불총), 상이용사불자회, 해외참전전우회 등 불교계 4개 보수 단체는 2월 18일 조계사와 통일부에서 '김정일을 지지하는 친북 승려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불총 등은 성명서를 통해 "1월 30일~2월 1일 조계종 대표단과 조불련 사업의 합의 및 논의 사항은 무지의 소행이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며 국민과 불교도들의 뜻에 반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합의했다면 이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며 "정부는 국가 정책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조불련과의 남북대화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불기 2554년 경인년 부처님 출가재일 기념

민족화합평화기원불교도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취임

• 일 시 : 2010년 3월 23일 (음, 2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북 옥천 IC 입구 명가 연회장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생동하는 경인년 새봄을 맞아 부처님 이름으로
2천만 불자의 안위를 기원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점철되어 세간에서는
국기가 흔들리는 염려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 이제 불교가 다시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라 고승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거울삼아 호란과 왜란을 물리친 승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사부대중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금까지 오매불망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원력을 다져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국난극복과 더불어 제2의 불교중흥을 위한
대법회 법석을 마련코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불교중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승왕청 CBC108.TV연합불교방송 일붕신문사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명단 ◆

총 재 세계승왕 인왕 신판석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부 총 재 보 리 현 광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청 원 박수응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법 각 지 오 (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안신풍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회 장 의 륜 서주범 (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부 회 장 법 진 신승도 (호국불교효예종 종정)
청 암 도한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만 주 조성수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심 향 법 장 (한국불교구산선문회 회장)
연 화 덕 산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자문위원 대 천 문연우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월 담 성 인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향 덕 박승억 (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회 원 법 안 이기욱 (통합불교아미타종 종정대행)
청 산 성 운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일 웅 김철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법 정 구철회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은 곡 조병남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총무원장)
원 각 한경수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해 광 문동춘 (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대 성 김영기 (대한불교대성종 총무원장)
해 광 전충열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원 공 유명곤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안 심 박영주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혜 륜 백선권 (해동불교입제조계종 총무원장)
혜 봉 김일석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덕 정 이형덕 (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총무원장)
청 담 윤문봉 (한국불교내외종 대표)
법 정 덕 암 (대한불교정법종 종정)
지 법 반동환 (대한불교지법태고종 총무원장)
혜 덕 월 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표)
관 행 정숙자 (대한불교관음성종 대표)

※연합불교방송/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제 772 호 현대불교
2010년 2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아이티 긴급구호 현장에 나툰 약사여래불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아이티 현지에서 매일아침 예불을 봉행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 주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진 15명 봉사팀 2월 5~9일 파견
"불교계도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해야"

1월 지진이 휩쓴 아이티의 2월은 태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섭씨 35도를 넘어선 기온은 물을 마셔도 그대로 땀이 돼 흐르게 했다.

멀리서 엄마 손을 꼭 붙잡은 아이가 울상이 되서 걸어온다. 가까이와 보니 치료받을 아이보다 엄마의 발목 치료가 시급해 보였다. 발목에 난 곪은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다리까지 절단해야할 상황이었다. 이 상태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던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던 것이다.

조계종 아이티 구호 의료봉사단이 현지에 도착해서 본 포르토프랭스 인근 따바 지역은 환자와 보호자를 구분할 수 없이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 겨를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의료봉사 단장 묘장 스님(총무원 사회국장)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사단 귀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5일간의 봉사활동과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1월 12일 발생한 아이티 지진은 대재앙이었다. 비참한 아이티 현장 소식에 각국의 구호 손길이 이어졌다. 불교계도 발 빠르게 구호팀을 구성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곧바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구호기금을 모금하고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동안 모금액이(2월 18일 기준) 5억 4000천여 만원에 이른다. 의료봉사단은 묘장 스님을 단장으로 동국대 일산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1월 31일 발대식을 갖고 2월 5~9일 아이티 참사현장에서 의료구호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아이티 구호 의료봉사단'은 2월 5일 아이티 뽄뻬뜨 지역에 의료본부기지를 세우고 첫 진료를 시작했다. 봉사단은 호시호보(虎視虎步)의 자세로 의료활동에 매진했다. 용맹정진이 따로 없었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이 밀물처럼 모여들었다. 현지 주민 대부분이 병원 진료경험이 없었다.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다보니 상처에는 염증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얼굴에 땀이 내리고 있는 것도 잊은 채 환자를 진료했다. 이렇게 첫째날 치료한 사람이 273명이었다. 역부족이라고 생각됐지만 봉사단은 매순간 불보살님들께 간절히 기도했다. 한사람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환자들은 치료가 가능했지만 상처가 심각한 환자들은 응급조치 후 인근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했다. 큰 병원으로 이송된 한 환자는 X-ray촬영이 필요했지만 환자는 아픈 상처를 안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다. 치료비 마련을 위해 환자가 찾아간 곳은 포르토프랭스에 위치한 UNDP(유엔개발계획: 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하는 기구) 아이티 임시본부. 참사 이후 아이티의 은행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라 현지 주민들은 현금이 없었다. 대신 UNDP가 실시하는 잔해 제거 등 청소 작업을 하고 하루 5달러씩을 벌 수 있었다. 환자는 이삼일을 일해 번 돈으로 X-ray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봉사 둘째 날, 현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한층 수월하게 진료가 진행됐다. 하루만에 조계종 의료봉사단의 진료소식이 입소문이 났다. 멀리 떨어진 마을주민들과 현지 경찰, UN 직원들이 조계종 의료봉사단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날이 가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외과 · 소아과 · 성인병 등 진료과목도 가지가지였다.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지막 날까지 무사히 1137건의 진료를 마쳤다.

봉사활동 기간 동안 묘장 스님은 아이티 곳곳에서 펼쳐지는 각 나라와 NGO단체의 구호활동을 모니터하며 정보와 의견을 교류했다.

한국의 경우 구호활동은 대한적십자사에 협의 ·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1인당 20kg을 넘지 않게 짐을 꾸려야하는 여건상 개인물품을 최소화했음에도 아이티에 가지고갈 약품을 넣을 공간이 부족해 아쉬워했다고 한다.

묘장 스님은 "독일은 국가에서 200억 원을 지원해 전용 헬기로 인력과 의료품을 전달하고 아이티에 3개월 간 머물며 안정적인 의료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원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국경없는 의사회의 경우 재난발생 현장에 48시간 이내 도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봉사단은 서울에 와서도 땀이 채 마르지 않았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한 현지인들에게 보건의료분야와 학교건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아이티에 발을 딛었을 때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 곳의 도움으로 계획했던 의료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보람도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아이티에 재난 극복을 위한 자비의 손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티에 나툰 약사여래의 화신.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지구 반대편 아이티에서 자비의 인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왔다.

글=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사진=공동취재단



조·태 분규 '정화' 면 종권 갈등 없어야

김순석 관장 저서 '백년 동안 한국불교…' 에서 비판

최근 조계종-태고종의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 타결이 불교계 이슈가 되고 있다.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양 종단의 분규는 50여 년 동안 불교계 화합의 걸림돌이었다. 조계종-태고종간 갈등을 조계종은 '정화'로, 태고종은 '법난' '분규'로 각각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서로의 시각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김순석 관장(한국국학진흥원 한국유교문화박물관)이 저서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운주사 刊)에서 "조계종이 비구 · 대처승간 분쟁을 '정화'라는 용어로 표현하려면 1970년 1월 태고종 창종 이후 비구 승단 내부에서 종권을 둘러싼 갈등이 없었어야 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비구 · 대처승의 분쟁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대처승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담화발표로 촉발됐다. '정화운동'은 1970년 1월 대처승 측이 태고종을 창종해 일단락됐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최대 종단의 모습을 갖추게 된 이 사건을 조계종은 '정화'라고 표현하지만, 태고종은 '법난'이라 규정하고 있다.

김 관장은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깨끗한 것만 남긴다'는 '정화'라는 용어대로라면 적어도 정화된 집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일은 없어야 했다"며 "수행승으로 자처한 조계종 승려들은 종권 장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1978년 조계사파와 개운사파로 양분됐다"고 말했다.





김순석 관장의 책(위)과 비구 · 대처분쟁 당시 '불법에 대처승 없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 중인 비구스님들.

김순석 관장은 1978년 조계종 양분 사태의 원인을, 종정이던 서옹 스님의 문중 배경이 없고 파벌색이 약했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했다. 배경과 파벌이 없던 서옹 스님이 종단 실무를 장악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는 진단이다.

김 관장은 "서옹 스님은 1975년 8월 손경산 총무원장을 비롯한 부장 · 국장급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본사주지 발령시 종정 재가를 얻도록 했다"면서 "총무원장부터 이에 반발한데다 총무원장이 양주 대성암 토지매각 대금을 유용해 구속되는 등 종단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손경산 총무원장 이후 박기종 · 고경덕 · 김자운 총무원장이 차례로 취임했지만 종단은 안정되지 못했다. 1977년 7월 취임한 김혜정 총무원장이 종정을 보좌해 업무를 집행했을 때는 중앙종회 측에서 반기를 들었다.

김순석 관장은 "1977년 해인사에서 열린 임시 중앙종회에서 종정 불신임이 결의되고, 서옹 종정이 사퇴했다. 원로회의가 종단재건회의를 세웠으나 조계종은 이미 조계사 측과 개운사 측으로 양분된 뒤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관장은 "조계사와 개운사 두 측이 서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세속법에 의지했다"면서 "어떤 판결도 어느 한쪽의 완전 우위를 확인시켜 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조계종 내 갈등으로 1979년 부처님오신날 법회는 두 총무원에서 별도로 봉행하기도 했다.

김순석 관장은 "1980년 송월주 총무원장 체제도 3년간 계속됐던 종권 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이후에도 조계종은 내부분열을 수차례 겪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태고종과의 갈등에서 '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계종이 내부 갈등을 겪은 원인은 조선~일본강점기를 거치며 교세가 위축되고 승려의 자질이 저하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순석 관장은 "10 · 27법난은 비구 · 대처간 분쟁 후에도 혼미한 상황을 거듭해온 불교계에 제5공화국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를 '정화'시킨다는 구실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책에는 조선불교유신회의 사찰령 철폐운동과 미군정의 불교정책 등 1877년 일본불교의 한반도 상륙부터 1998년 조계종 개혁불사까지 121년간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마다 김순석 관장의 주관이 강하게 피력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문학 그 속에 담긴 의미…

東大 한국문학연구소가 펴낸 '불가의 글쓰기…' 눈길

불교문학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비롯해 불교적인 것을 표현한 저작물 등을 통칭한다. 근현대 이후 불교문학의 범주는 문학형식에 불교사상을 담고 있는 창작물로 확대됐다.

불교가 한국문화의 주류를 이룬 것은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오랜 세월 대중과 함께 해왔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불교문학은 통일신라시대의 향가부터이다. 향가의 작가는 스님과 재가불자가 주를 이뤘고, 내용도 불교적인 소재가 많았다. 고려가요와 설화 등에서도 불교문학은 빠지지 않았다. 고려 때 편찬된 <삼국유사>가 역사서이기 이전에 불교문학서인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춘식)이 한국 불교문학에 고전문학 연구를 시도한 성과물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동국대 출판부 刊)을 펴내 눈길을 끈다.

책은 12편의 불교문학 논문을 '불가의 사(私)문학' '유가와 불가문학' '불교문학과 출판'의 세가지 테마로 나뉘어 수록했다.

김승호 동국대 교수는 '고려 불가의 자전적 글쓰기와 그 양상'에서 고려 시기 불가에서 이미 자전적 글쓰기 유형이 출현했음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려 시기 불가에서 출현한 자전적 글쓰기는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개방적 안목으로 자아의 역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

김종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주제논문 '침굉현변의 글쓰기 방식과 문학치료'를 통해 침굉의 서간문을 문학적 치료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침굉현변 스님(1616~1684)은 조선 중기 선암사 · 송광사 · 징광사 등지에서 주석했던 선지식이다. 스님의 서간을 모은 <침굉집>에는 한시 117수와 산문 27편, '태평곡' '귀산곡' '청학동가' 등 가사 3편이 수록돼 있다.

김 연구교수는 침굉의 글쓰기를 △내면의 상처와 결핍 드러내기 △이상적 경지 꿈꾸기 △갈등 치유와 평정 유지하기로 구분했다.

김종진 연구교수는 "침굉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불교계의 모순을 가사로 읊어낸 인물"이라며 "그의 서간문에서는 개인적 충격과 아픔을 교학과 선 수행 정진과 유교 · 도교 사상에 탐닉해 채워나가려 한 경과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일기 중앙대 교수는 '백파긍선과 양진거사 박치유의 만남'에서 조선후기 선지식인 백파와 태인 방각본의 주인공 박치유를 통해 한국출판사에서의 위상을 밝혔다.

태인은 조선 후기 20여 종에 이르는 상업적 출판물을 간행했던 지방이다. 당시 간행된 책은 '지방에서 출판한 서책'이라는 뜻의 '방각본(坊刻本)' 혹은 '태인판 방각본'으로 불렸다.

김기종 고려대 국문학과 BK사업단 연구교수는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사상적 기반'에서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석보상절'에 비해 <법화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등 추선(追善) 의식에서 중시되던 경전의 비중이 약화되고, <대방편불보은경> <태자수대나경>과 같은 보은을 강조한 불전의 비중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김 연구교수는 "보은과 그 실천덕목인 효도 · 보시 · 인욕 등은 불자의 덕목인 동시에 당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할 생활규범이었다"면서 "'월인천강지곡'의 저술은 신앙 · 기복적 목적 이외에 백성의 교화를 위해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학연구소 김춘식 소장은 "<불가의 글쓰기와 불교문학의 가능성>은 한국의 불교문학과 고전문학 연구가 새로운 학문의 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東大 불교논문 박사 15·석사 22편

한서대 · 동방대학원대학도 차 등 불교관련 박사 논문 통과

동국대 대학원 2010년도 봄 학위논문에서 박사 15인과 석사 22인의 불교학 관련 논문이 통과됐다.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불교교학 전공에 '문궤(文軌)의 <인명입정리론소>에 관한 연구'(선응 스님)를 비롯해 '보살십지사상 연구'(성기 스님)와 '<중변분별론>의 중도사상 연구'(희경 스님), '연담 유일의 일심화회사상 연구'(현석 스님), '무아와 아트만에 관한 연구'(김정근), '천태의 안반수의 연구'(정문용)'가 △응용불교학 전공에 '사십구재와 우란분재에서의 유족심리 치유에 관한 연구'(이범수)와 '시장자본주의 대안으로서의 불교자본주의 연구'(윤성식), '초기불교 문헌의 기(記)와 무기(無記)의 사유구조 연구'(신병삼), △불교사학 전공에 '<화엄경문답> 연구'(장진영)가 있다.

또 △선문화 전공에 '혜심의 <선문염송> 연구'(영석 스님)과 △선종사 전공에 '경봉선사 연구'(정도 스님)이 △인도불교 전공에 '쉬바파 일원론의 연구'(심준보) △한국사학 전공에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이종수) △미술사학 전공에 '한국 나한도 연구'(신광희)가 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불교교학 전공에 '산따락시타의 유가행파비판 연구'(현서 스님)와 '<구사론>의 행상(行相) 연구'(승행 스님), '티벳불교 승원의 논리학 입문서 두라의 연구'(최경진), '<유가사지론> 오사장(五事章)에 나타난 수행론 연구'(상묵 스님), '아암 혜장에 대한 연구'(원법 스님), '설령 화엄사상 연구'(철우 스님), '몽골과 고려의 불교교류에서의 밀교적 영향 연구'(뎀브렐)가 △응용불교학 전공에 '<염불경>을 통해 본 당말 정토사상 연구'(영조 스님)과 '<보살영락본업경>의 보살사상 연구'(이자평)가 있다.

△선종사 전공에는 '<석문의범>에 대한 연구'(선정 스님)이 △응용선학전공에는 '명상의 현대심리학적 · 의학적 활용연구'(이정은)이 △인도철학 전공에는 '자이나교의 일체지 사상 연구'(양영순) △인도불교전공에는 '<법화경>의 다라니 연구'(상국 스님)이 △한국사학 전공에는 '효령대군의 불교신앙과 불사'(법정 스님), '한용운의 사회진화론 인식과 대응'(전덕윤)이 있다.

△미술사학 전공에는 '조선시대 석가팔상도 연구'(신지연) 등이 △유야심리전공에 '불교유아교육과정중심 명상활동이 유아자기 통제능력 및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정현 스님) 등이 있다.

한서대 대학원에서는 '차 문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정운 스님)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됐고, 동방대학원대학에서는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김재영)가 있다. 조동섭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3월 5일까지 논문계획서·연구실적서 제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3월 5일까지 제4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을 공모한다.

학술상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한국불교학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한 상이다.

공모 자격은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 이상자로 불교사 · 응용불교 · 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 불교사회복지 등 불교 관련 주제 논문 계획서와 최근 5년간 연구실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술상 수상자는 3월 15일 개별 통보된다. 논문상 시상식은 5월 중, 논문발표회는 10월 중으로 예정됐다. 우수상 1인에게는 500만원, 학술상 3인에게는 각 300만원이 수여되며,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선문화연구>에 게재된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봉녕사 승가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 모집 공고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
(초발심자경문, 염불실기, 불교기초지식)

◆ 도착일시
•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用)
5) 최종학력 증명서
6) 사진(3×4) 3매

◆ 준 비 물 : 만의, 장삼, 필기도구

◆ 버스운행 : 수원역 앞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버스를 오후 1시 ~ 4시까지 운행함.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묘엄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금강율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봉녕사 금강율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 졸업생 스님들의 입방도 가능)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불교교리, 범망경)

◆ 도착일시
•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用)
6)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7) 사진(4×5) 3매

◆ 준비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봉녕사 금강율원 율주 묘엄
율원장 대우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금강율원**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일주문



네팔 · 스리랑카청년회 설날정기법회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진각복지재단 이사장)는 2월 14일 JGO네팔 · 스리랑카불교청년회 설날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설날 떡국 대중공양 실시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 위원장 현성 스님(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은 2월 14일 설을 맞아 재소자와 교도관들에게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제15회 포교사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2월 21일 서울 동국대, 대전 보문고,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고 등 전국 8개 종립학교에서 제15회 일반포교사고시를 실시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졸업식 봉행

불교상담개발원장 담교 스님은 2월 23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불교상담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



비구스님 대상 요가교실 개최

아헹가 요가협회장 현천 스님은 3월 7~9일, 9~12일 서울 서초동 아헹가요가센터에서 비구 스님을 대상으로 요가교실을 연다.



국회 조찬신년법회 봉행

최병국 국회정각회장은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초청 조찬신년법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만해백일장 실시

정웅정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3월 1일 동국대학교에서 초 · 중 · 고 · 대학 ·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31회 만해백일장을 실시한다. (02) 738-1920



동국대 총동창회 사무국장 임명

신관호 전 보현회 회장(동국대 교직원불자회)은 2월 19일 동국대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2010년 서담상 시상식 개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2월 24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0년 서담상 시상식'을 열고 취약계층에게 쌀과 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했다.



정우식 처장 출판기념회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3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하루 첫 생각> 출판기념회를 연다.

"인권이 곧 불성입니다"

국가인권위원 보광 스님 활동 각오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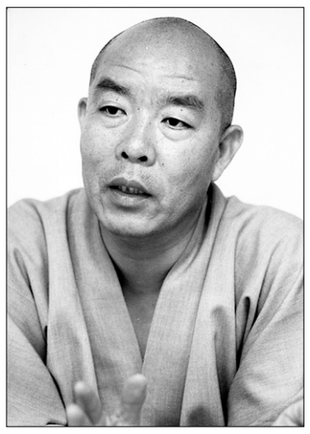
"여래장(如來藏) 사상을 연구해오며 인권은 곧 불성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중도의 자세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한다는 각오로 인권위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보광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교수)은 17일 불교인권위가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각 사회현안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따른 해법을 제시할 것을 밝혔다. 보광 스님을 비롯한 제4기 국가인권위는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후 8일 첫 회의를 시작하는 등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보광 스님은 인권위 활동에 대해 "인권활동이 미약했음에도 제가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것은 개인 자격이 아닌 인권 취약지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불교인권위와 많은 불자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 '모든 중생마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일체중생실유불성)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동국대학교 징계위원회 상벌징계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들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인권위 활동을 설명했다.

스님은 "당시 기물파손 등을 한 학생의 징계에서 '동국대는 부처님 대학인 만큼 불법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보자' 고 했다"며 "수개월의 정학 대신 1주일 간 교내법당에서의 108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 도량의 자비를 느끼도록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보광 스님은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불법에 따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과 차별 철폐에 나설 것을 밝혔다.

스님은 "저출산 ·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 활동 당시, 참여연대나 전경련 등이 서로 의견이 다름에도 오랜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경험했다. 인권위에서도 오랜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현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투쟁적인 대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양보와 이해를 통한 상생으로 문제해결을 이끈다는 것이다.

보광 스님은 인권위 내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으로 종교차별과 성차별 등 사회 각계의 차별을 없애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스님은 종교차별 등 사회문제에 대한 불자들의 깨어있는 활동을 당부했다.

스님은 "2008년 종교차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작 인권위 등 기관에는 진정서 접수가 전무했다"며 "불자들은 국가 창구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 문제를 제기, 문제해결에 일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권위의 보수화에 대한 스님의 입장도 공개됐다.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결정 당시 일각에서는 보광 스님이 보수 성향으로, 보수 6명, 진보 5명으로 인권위 구성이 변화해 현안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것을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광 스님은 "개인적인 성향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라고 단언했다.

스님은 "(세간에는) 인권위가 보수냐 진보 성향이냐면서 (저의) 한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국가인권위 활동은 어디에도 치우쳐서는 안된다"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지금까지 여래장 사상을 연구해오며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이 곧 불성이라고 생각했다"며 "인권의 취약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의 진정을 해결하고 불교 인권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을 비롯해 지원 · 현종 스님 등 불교인권위 스님들은 "불교의 이름으로 인권이 바로서는 토대를 닦는데 일조 해달라"는 격려를 보내며 활발한 협조를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원폭 2세 위한 첫 쉼터 생겨

합천군에 3월 1일 '합천평화의 집' 개원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 6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당시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원폭피해자 1 · 2세대가 그들이다. 1945년 아시아 ·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7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피폭 1세대는 상당수 사망했고, 병고와 가난 속에서도 삶을 이어온 생존자는 26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빈곤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단체 위드아시아(대표 지원 · WITHASIA)가 '원폭 2세 환우를 위한 합천 평화의 집'을 경남 합천군에 3월 1일 개원했다.

합천 평화의 집은 지원 · 후원에서 소외된 채 병고에 시달려온 원폭 2세 환우들을 보듬는 자비의 공간이다.

합천 평화의 집 소장 혜진 스님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원폭 2세 환우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와 인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경남 합천군에서 국내 처음으로 쉼터를 개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원폭 2세환우의 복지문제 해결과 한 · 일 양국 시민단체와 연대해 원폭문제를 해결하는 사무실을 겸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장기적으로 원폭 2 · 3세 환우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전문적 치료를 돕기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동국대학교 졸업식 봉행



자랑스런 동국인이여, 그대의 미소가 아름답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2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학본관 중강당에서 201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85명, 석사 532명 등 2,431명이 학위를 받고 사회 속으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졸업생들이 오영교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총장과의 포토타임'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오 총장은 수여식사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동국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사회로 나가게 될 졸업생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해 무한한 행운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한편 위덕대는 24일, 중앙승가대는 25일, 금강대는 26일 각각 201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수행과 문화가 접목된 이색 법회 봉행

대불련, 문화공연 '만다라' 선보여

육근청정 수행과 예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는 이색 열린법회가 봉행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명호근, 대불동)는 3월 14일 한국문화의 집에서 '만다라, 육근청정 그리고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의 명상'을 주제로 정기법회를 열고 수행과 접목된 예술 법회를 소개한다.

수행과 예술의 접목, 불자 예술인 발굴, 불교문화 컨텐츠 개발의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공연의 내용과 구성은 '육근청정'에 초점을 잡았다. 공연은 전통 육법공양 법회의 형식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음악공연, 불화영상과 조명활용 퍼포먼스, 꽃차 시식 등을 통해 육근정화 수행 체험을 하도록 구성됐다.

공연순서 명칭부터 '여는 소리' '이러한 뜻' '저 언덕으로' '비우는 길' '부처로 가는 길' 등으로 쉽게 한글로 풀었다. 내용도 신 삼귀의, 작법(바라춤)과 반야심경 랩, 경기민요 '청춘가' 멜로디가 접목된 한글 법성게 , 퓨전음악과 옴마니반메훔 공연 등 신선한 접근을 시도했다.

대불동 문화예술위원회 홍경희 위원장(불교인재원 이사)은 "예술인 불자들의 수행프로그램이자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의 장이다. 현대적인 법회와 수행을 접목시킨 첫 무대로 많은 이들이게 검증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국제포교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2)720-1963

이상언 기자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불교귀농학교 개강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제26기 불교귀농학교 수강생을 3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

3월 23일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의 삶, 귀농' 강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업은 매주 화, 목 저녁 7~9시 진행된다. 귀농학교는 이론수업 뿐만 아니라 의왕 고천 텃밭 실습과 실상사 현장실습 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기본 15만원. (02)576-1886

이상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 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5월 22일 / 모집기간 : 매월 상시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 광주교육원 062-672-5432 /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초조대장경 1000년 기념사업 준비 한창

고려대장경연구소, 대구시와 초조대장경 발간 협약


초조대장경

2011년,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해 초조대장경이 복원 발간되는 등 대구시와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기념사업 준비가 한창이다.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2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와 초조대장경 천년 기념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대구시와 고려대장경연구소, 대구 동화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일 공동출간위원회를 구성해 초조대장경을 복원 출간하고, 동화사 일대에 승시(僧市) 등을 재연키로 합의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011)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 위신력으로 물리치고자 간행돼 동화사 말사인 팔공산 부인사에 소장됐다가 고려 고종 19년(1232) 침입한 몽골에 의해 불타 소실됐다. 현재 초조대장경 목판과 완질 인쇄본은 존재하지 않고 일본 교토 남선사 등 국내외에 2000여 권의 인쇄본만이 소장돼 있다.

대구시는 고려대장경연구소 등과 함께 최근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 1800여 권을 디지털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조대장경을 복원 발간할 계획이다.

대장경 천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초조대장경 복원 발간 프로젝트에는 5년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시는 대구 동화사 등과 9월경 팔공산 부인사에서 사찰 특산물 장터인 승시를 재연할 예정이다.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옮기는 이운 행사를 비롯해 동화사와 부인사를 잇는 순례길 걷기, 한 · 중 · 일 문화교류 워크샵, 대학생들의 천년 평화대행진, 대장경 체험 템플스테이 등도 함께 개최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위원장 김태호 · 경남도지사)도 2월 19일 도정회의실에서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 등과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김범일 대구시장,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 스님이 MOU 체결 후 초조대장경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세계 각국과 네트워크를 갖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해 유네스코기록유산인 대장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선각 스님과 김태호 도지사, 전택수 사무총장, 심의조 합천군수 등은 협약서에서 대장경과 해인사가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장경판 해외전시와 홍보 등을 위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5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 · 태지역 자문회의'를 경남 지역에서 개최키로 약속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 · 태지역 자문회의는 5월 21~2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유네스코 아 · 태지역 국가위원회 장 · 차관급 대표단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태호 도지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 · 태지역 자문회의의 경남 개최가 세계인과 함께하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대규모 불교행사 통합 · 조정

제주불교연합회 정기총회

제주 불교계가 제주 지역 대규모 불교행사는 제주불교연합회 주관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그 첫 번째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행되는 봉축대법회 및 제등행렬은 '제주도민의 화합을 위한 연등축제'로 명칭 변경된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원종 · 관음사 주지)는 2월 5일 관음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원종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법담 스님, 법화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관효 스님, 원효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강설 스님, 일붕선교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영수 스님, 천태종 문강사 · 해운사 주지 설래장 스님, 제주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동제 스님 등 제주불교연합회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불교연합회 임원 스님들은 이날 총회에 상정된 2009년 예산결산보고, 2010년 사업계획, 불기2554년 연합봉축위 실무진 구성 등을 처리했다.

또, 제주불교연합회는 대규모 불교행사의 사전조율을 통해 중복 개최를 막고 종파를 초월한 동참을 유도키로 하고 월별 행사 등을 통합 · 조정했다.

다음은 정기총회에서 개최 합의된 행사와 행사 주체이다.

△3월=바자회(제주 비구니회) △4월=4 · 3원혼 천도재 및 위령재(조계종)/ 용산당 김대현 대종사 열반 10주년 기념집 봉정 법회 · 산방산 보문사 청동약사여래불 봉불 및 산사음악회(원효종) △5월=석가모니불 탁발수행 재현법회 · 원효성사 열반대재(원효종)/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 연등축제 · 봉축전야제 · 봉축연합합창제(제주불교연합회)/ 작은 음악회 및 컵등 나눠주기(법화종)/ 경로잔치(일붕선교종) △6월=초전법륜기념 포교대상시상식(원효종)/ 일붕 서경보 스님 14주기 추모법회(일붕선교종) △7월=안봉려관 스님 다례재(조계종) △8월=산사음악회(조계종)/ 작은음악회 및 연주회(법화종) △10월=한라산 영산대재 및 세계평화기원법회(조계종)/ 제주교구 각 사암 가족 불명갖기 수계대법회(원효종)/ 문강사 창립법회(천태종)/ 찬불가의 밤(법화종) △미정=태고종 제6회 연등문화축제(태고종)

조동섭 기자

중국 쓰촨성서 반中 시위

티베트인 400여 명, 경찰과 대치


2008년 3월 라싸 사태 당시의 모습.(현대불교 자료사진)

중국 쓰촨(四川) 성의 티베트인 거주지역에서 2월 15일 티베트인 400여 명이 반중(反中) 항의 시위를 펼치다 경찰과 대치했다.

독일의 DPA통신은 티베트 독립을 옹호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phayul.com)를 인용해, "2월 15일 쓰촨(四川)성 아바주의 한 광장에 400여 티베트인 주민과 승려들이 모여 기도를 하면서 라싸 사태 희생자에 대한 추모 의식을 진행하다 출동한 경찰들과 대치했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중국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티베트인들을 에워 싼 가운데 티베트인들은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뜻으로 보릿가루를 하늘로 던졌다.

DPA통신은 이번 시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티베트인 자치주인 아바주는 2008년 3월 라싸 사태 직후 동조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다. 티베트 망명정부 측은 당시 이곳에서 39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해 왔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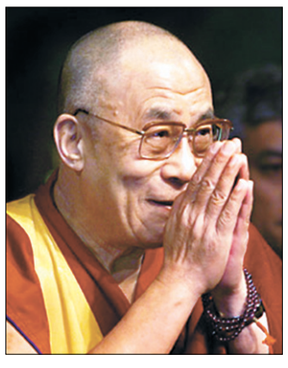
오바마, 달라이 라마와 비공개 면담

중국 정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2월 18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와의 면담을 강행했다. 달라이 라마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 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도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맵룸(Map Room)에서 달라이 라마와 1시간 넘게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의 중도적 접근법과 비폭력, 중국 정부와의 대화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종교 · 문화 등 정체성을 지키는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첫 만남은 백악관 측이 중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아닌 맵룸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회동에 대한 설명도 구두 브리핑이 아닌 기브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로 대체했다.

지난 수십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미국 대통령들과 면담했던 달라이 라마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집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면담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달라이 라마의 특사인 로디 갈리는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집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면담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번 면담은 중국으로부터 탄압받는 티베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마다가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중국은 미국에 강한 불만과 함께 결연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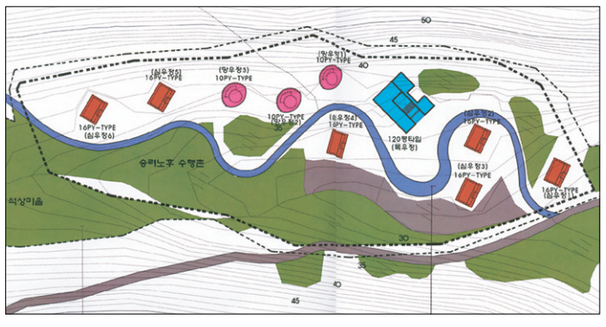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차례에 걸친 엄중한 항의의 뜻을 무시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강행했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과 중 · 미 양국간 3대 공동성명 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을 환영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9일 보도에서 "달라이 라마의 고향인 중국 칭하이(青海)성의 티베트인들이 춘절을 맞아 불꽃을 피우는 의식을 통해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의 회동을 지지 · 축하했다"고 보도했다.

조동섭 기자

승려노후수행관 건립 탄력

선운사, 공모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나와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안태안 · 안성원씨의 '십우도를 따라 걷다'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지난 11월부터 공모한 석상마을 '승려노후 수행관' 공모전 수상작을 2월 12일 선정 · 발표했다.

스님들의 노후에 대비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투명한 불사로 진행하기 위해 공모한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공모전에는 안태만 · 안성원(씨드아키텍건축사무소)이 제출한 '십우도를 따라 걷다'와 최동명의 '자연과 공존하는 마을'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한양대 오준형씨의 '최소한의 개발로 마을의 원형을 보전하는 수행촌'이 뽑혔다.

선운사 이성수 총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스님들의 수행환경과 전통문화, 생태마을을 주제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노후수행관 건립사업은 공개입찰과 공모전 등에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 공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운사는 노후수행관 건립에 불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1만원 만등불사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특히 노후수행관의 투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코피노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필리핀 현지에 유치원 설립 계획 발표

부산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이 필리핀에서 어렵게 생활중인 코피노들을 위한 유치원 설립에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스님은 지난해 4월 25일 아시아공동체학교 및 못골 성당과의 자매결연을 신호탄으로, 10여 년 전부터 발원해온 코피노유치원을 통한 다문화운동에 돌입했다.

"우연히 필리핀에서 만난 한 코피노 소년이 제게 '커서 큰돈이 생긴다면 한국인 아빠를 찾아가 총으로 쏘겠다'는 말을 했어요. 충격적이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어렵고 힘든 코피노들을 위해 아빠의 나라에서, 떠난 아빠의 자리를 대신해 버팀목이 돼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코피노(Kopino)는 한국 남성(Korean)과 필리핀 현지 여성(Filipino) 사이에 태어난 2세를 필리핀에서 이르는 말이다. 코피노 중 한국인 아버지가 필리핀에 남아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상류층에 속한다. 반면 유학, 사업, 여행 등 목적으로 임시 방문했다가 무책임하게 떠나버렸을 경우 현지에 남겨진 필리핀 여성과 그 2세는 음지에 숨어 힘들게 살게 된다. 코피노는 1세대로 불리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 태어난 아이들까지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필리핀 교민사회 관계자는 "스스로 코피노 임을 숨기는 경향이 강해 1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피노가 1만여 명 이상임에도 한국은 코피노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숨기고 싶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도 아니에요. 만약에 필리핀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코피노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을 테니까요.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쟈피노(Japino)에게 용서를 구하며 적극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문화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도와주며 가르쳐야 합니다."

정산 스님은 "코피노 문제에서 불교계는 화합과 자비, 상생을 함께 고민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설법과 경전, 명상 등이 아닌 온몸으로 실천하며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현재 필리핀 남부 바다오 지역에 설립을 추진 중인 코피노유치원은 작은 건물에 터전을 마련하고, 훌륭한 현지 교사를 채용하는 등 물리적인 준비단계는 끝이 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도움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지에 관한 신중한 논의가 교민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손가정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겨왔는데 괜히 돕는답시고 치부를 드러내 상처만 줘서는 안되잖아요. 무조건 좋은 일이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피노들이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겠지요."

당초 올해 안에 코피노유치원을 개원하려 계획했지만 좀 더 빨라질 수도 혹은 한없이 늦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님의 코피노유치원 설립이 좌초되더라도 제2, 제3의 정산 스님이 나타나 그 뜻을 이어가야 하고, 또 반드시 그러리라는 것이다.

"언젠가 코피노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나라에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비자를 쉽게 내어주는 등 한국 사람처럼 대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합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화합 · 상생 모티브로 지어진 현대식 도량

안국불교대학, 3월 2일 개원 및 입학식 초읽기

"안국불교대학은 안국선원 신도들만 가는 곳이에요?"

"아니요. 불교를 알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순수한 신행 · 정진 공간입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불교대학이 부산 도심 한가운데 문을 연다. 안국불교대학(학장 무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1년여 준비를 끝내고 3월 2일 개원 및 첫 입학식을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원을 열흘쯤 앞두고 학장 무관 스님은 "인근 타 불교대학들과 과열경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안국불교대학은 불교를 알고 싶어도 찾아가 공부할 재적사찰 없이 겉도는 재가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배움의 참기쁨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설립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안국불교대학 학장 무관 스님

안국불교대학은 도량 외형부터 노출콘크리트 공법으로 독특하게 지어졌다. 독특한 건축양식에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건축한 건물답게 안국불교대학은 도서관과 전산실, 화합의 홀 등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학장 무관 스님의 방문도 항시 열려 있어 누구나 스님을 찾아 차담을 나눌 수도 있다.

안국불교대학의 2층 대법당은 불사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다. 대법당 중앙은 석굴암과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좌우로 문수 · 보현보살을 봉안했다. 그 주위도 탱화를 대신해 부처님 십대제자를 배치했다.

"혹자는 이슬람교 예배사원인 모스크를 연상시킨다지만 안국불교대학은 화합과 상생을 표현하는 현대식 도량입니다. 건물 한가운데 화합의 홀을 마련해, 학생이 아닌 지역민 누구든지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학사과정 이외의 문화행사와 학술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해 그분들의 발길을 학교로 이끌어야겠지요."

현재 불교계는 불교대학 입학생 부족을 겪고 있다. 안국불교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시민 중 60%이상이 불자라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자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어 왔다. 무관 스님은 불교에 대한 호감만으로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불교의 진수를 전할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대학만의 특징은 건물 및 강의 시설의 현대화, 젊고 유능한 강사진, 포교원의 커리큘럼에 준하는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입니다. 3년 후에는 일반 대학과 다름없는 지식의 상아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스님은 "'진실하고 화합하며 상생하자'는 건학이념을 구현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051) 501-7554~5

박지원 기자

깨끗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주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부산시협의회(상임대표 정여스님 · 이종석 · 정영문 · 김문숙 · 김성수, 이하 공선협)가 6 · 2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와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공선협은 2월 17일 광장호텔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활동을 다짐했다.

공선협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와 매니페스토 선거 캠페인에 주력하게 된다. 또, 복합한 선거방법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대광명사 사무량심회

자비희사하니 행복이 쑥쑥

부산의 새 도심으로 급부상중인 해운대 지역에는 유난히 이름난 사찰들이 많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교양대학까지 보유한 사찰부터 온 국민에게 참선수행의 참맛을 전하는 수행중심의 사찰, 한 시대를 풍미한 대덕 큰스님이 머문 도량 등 불자들의 신심을 더욱 뜨겁게 해줄 훌륭한 사찰들이다. 이런 가운데 종교를 떠나 해운대구민 모두가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찰이 있어 눈길을 끈다. 작년 연말 해운대구로부터 꾸준한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패를 받은 그곳은 바로 대광명사(주지 목종)와 그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사무량심회(회장 홍동의)가 그 곳이다.



지난해 11월 해운대구의 '칭찬릴레이'에서 네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대광명사 사무량심회.

사무량심회는 대광명사 불교대학 11~12기 졸업생을 중심으로 베풀어 남을 기쁘게 하는 '자비희사'를 슬로건 삼아 2007년 6월 창립됐다. 사무량심회 회원들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보시를 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창립 당시 40명이던 회원은 불교대학 과정이 배출한 졸업생만큼 더해져 현재 61명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사무량심회가 지역민에게 사랑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인 휴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과 최첨단 건축물인 센텀시티 등 살기 좋은 신도시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끌어 안았기 때문이다.

사무량심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독거노인 30명에게 밑반찬 도시락을 배달하고, 같은 주 일요일에는 국군부산병원 내 군법당 묘광사에서 군장병 불자를 위한 점심공양을 손수 대접하고 있다. 셋째 주 금요일에는 독거노인에게 생활물품을 전달하며, 넷째 주 화요일에는 해운대역 앞 무료급식소에서 점심공양을 나눠준다. 틈틈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 청소해 온 사무량심회는 올해부터 장산 꾸미기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회원 대부분 집안 살림을 맡은 어머니들이라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집안일과 봉사활동으로 여념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여유롭다.

홍동의 회장은 "자원봉사는 할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수양의 한 과정이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배움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지혜로서 스스로 행복하려면 반드시 자비의 실천을 해야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동의 회장은 "밑찬반배달은 앞으로 독거노인 100명까지 늘리는 한편, 해운대백병원이 개원되면 사무량심회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계획이며 현재 원서접수까지 마친 상태다. 올 여름부터 해운대해수욕장이 개장하면 주말마다 청소 봉사를 나가고, 봄부터 가을까지 장산 꾸미기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한류 원조 김지장보살 통해 호남불교 우뚝”

현장 스님, 불교의 진리 전하고자 지장왕사 개설



현장 스님이 김지장보살이 국수를 말아먹었다는 백토를 설명하고 있다.

‘구화산빌리지’로 이름 지어진 빌딩에 위치한 ‘지장왕사’는 몇 해 전 상무신도심으로 이전한 광주시청이 있었던 자리이다. 또한 1960년대까지 경향방죽과 태봉산(왕실의 태를 묻는 곳)이 존재했던 곳이다.

보성 대원사 前 주지 현장스님(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은 광주시청이었던 5층 건물을 구입해 김교각지장보살(이하 김지장보살)을 선양하는 포교당을 개설했다. 이곳이 지장왕사이다.

현장 스님은 이미 광주전남지역에서 아시아문화사업을 지속해온 문화전문가이다.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을 시작으로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해 인도박물관을 운영했다. 또한 자비신행회 회주와 한꽃외국인센터,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호스피스사업 등 광주지역 최초의 사회사업과 문화사업을 일궈온 문화 일꾼이다.

지장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난 2월 19일 개원했다.

현장 스님은 “대원사라는 산사의 사찰에 있다가 도심포교의 뜻을 갖게 됐다. 구체적 포교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끼친 김교각 스님을 한국에 알리고 그 분의 가르침과 사상을 사회시키기 위해 법당을 마련했다”고 개원의 의미를 말했다.

개원한 포교당은 전체 건물 중 4층 88평 법당과 5층 식당과 요사공간만을 사용한다. 차후 재정여건이 사찰음식전문점과 공연장을 열 예정이다. 지장왕사 4층 입구에 들어서면 좌측은 ‘구화산방’이, 우측은 ‘김지장기념관법당’이 마련돼 있다.

법당에는 김지장보살과 관련된 유물과 참배공간이 있어 법회 공간으로 활용되고, 구화산방은 지장신앙과 관련된 자료가 전시돼 불교공부와 문화교육이 진행된다.

법당 통로에는 김지장보살의 일대기를 표현한 사진과 해설이 배치됐다. 끝에는 구화산 천대봉에 남아있는 김지장보살 발자국을 본뜬 석조물인 ‘고대경배’와 중국의 목조탱화가 놓여있다.

법당에는 신라의 삼살개로 알려진 ‘청사자’를 좌대로 앉은 김지장보살이 주불로 모셔져있다. 머리에는 오불보관(다섯 분의 여래를 모신 보관)을 쓰고 육환장과 보주를 들고 있는 상이다. 법당의 주변으로 동판으로 양각되어 금으로 도금된 <지장보살보원경>, 김지장보살이 국수를 빚어 먹었다는 ‘백토’, <무량수경> 사경본, 중국황제로부터 받았다는 지장이성금인(地藏利成金印) 사본 등 많은 관련 유물이 전시돼 있다.

법당 옆에 마련된 구화산방은 사찰의 다목적 공간으로 불교강좌, 문화강좌 등이 열리는 공간이다.

현장 스님은 “앞으로 김지장보살의 사상을 선양하고 알리는 역할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현세가 지옥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교의 자비정신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웰빙(Well-being), 웰다이(Well-Die)의 모범을 보여준 김지장보살의 삶을 통해, 내세를 잘 준비하고, 배워서 사람들이 불교적 죽음과 가치관을 깨우침을 얻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장보살을 통해 일반인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현장 스님은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고, 문화교류의 시대이다. 이를 선구적으로 실천한 역사인물이 많다.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불교는 백제 성왕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성왕을 통해 많은 문물을 전래받아 문화의 전성기를 이뤘고, 오늘날 세계적 문화국가로 성장하게 된 씨앗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스님은 “신라불교가 중국에 진출하여 광범위한 계층을 교화하고 감동을 줬다. 그분이 김지장보살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4대 불교성지가 있다. 관음 · 문수 · 보현보살은 경전에 나온 보살이지만 김지장보살은 역사적 실재인물이다.

현장 스님은 “ 김지장 보살은 역사적 실재인물로 구화산만이 갖는 차별성과 특징이 있다”라며 “김지장 보살은 한류의 원조격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중국에는 김지장보살에 관한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만, 한국에서 철저히 소멸되고 차단됐다”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조선시대 억불로 인해 불교관련 서적이 많이 없어진 것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스님은 지장왕사를 통한 구체적 지향점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지장분신의 양성이다. 현장 스님은 “최근 영화 ‘아바타’가 유행하듯 김교각보살 또한 지장보살의 아바타 화신으로 이 세상에 와서, 지장보살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며 “김교각보살은 지금도 육신불로 남아 깨달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김교각보살의 정신을 배워 지장보살의 아바타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장보살이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돕는 것이 지장분신의 양성이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호남불교의 중흥이다.

현장 스님은 “호남불교의 구체적 대안으로 ‘지장불교문화전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장불교문화전당’은 한국민족문화, 불교문화, 아시아문화가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문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이다. 스님은 “불교가 종교적인 공간으로만 머물지 않고, 1600년의 문화적 전통을 다양하게 개발해 불교가 문화와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한국은 대승불교를 내세우지만 대승행이 가장 부족하다”며 “대승행원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김지장보살의 행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김교각보살 선양사업을 전국적인 신앙운동으로 확산시켜 김지장보살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스님은 지장왕사 개원과 함께 ‘지장1000일기도’를 시작했다. 또, ‘지장불교문화전당’ 건립을 서원해 ‘100만인 <지장경> 사경’도 봉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지장보살 기념관 법당 모습.



김지장 보살의 발자국인 고대경배와 목조탱화.

장보고의 후예들 완도군 연합신도회 창립

완도지역 불교신자들의 구심점이 될 완도군불교사암연합신도회(회장 우성자)가 2월 16일 완도군민회관에서 창립됐다.

완도군불교사암연합신도회 창립 법회에는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을 비롯해 우성자 신도회장, 김종식 완도군수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창립법회는 난타그룹 얼쑤와 트로트신동으로 알려진 이기흠 어린이 등의 식전공연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등 불교의식에 이어 신임 우성자 회장의 인사말, 법일 스님 · 김종식 군수의 축사, 시몽 스님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시몽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완도는 장보고 대사의 고향이며, 세계무역을 펼쳤던 뜻 깊은 고장”이라며 “장보고 대사를 통해 세계로 펼쳐졌던 불교를 오늘에 되살려 많은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말했다.

법어에 앞서 우성자 회장은 인사말에서 “완도지역 불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무실을 만들겠다”며 “향후 완도불교가 하나로 화합되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신도회는 우성자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2인, 재무, 교육 등 8명의 임원진을 꾸려 완도지역 불자들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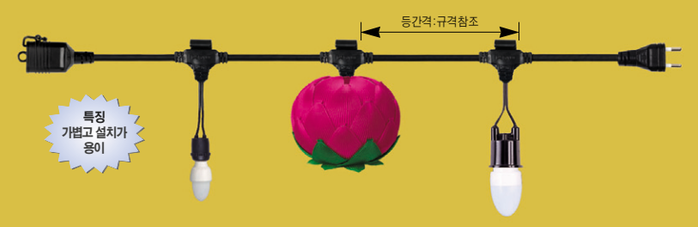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교종 으뜸 사찰’ 맥박 전하니 가르침 더욱 빛나네

㉘ 교종수사찰 봉선사

‘봉호선왕지능(奉護先王之陵)’.

선왕의 능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조선 세조의 아들인 예종이 이러한 뜻을 담아 ‘봉선사(奉先寺)’라는 현판을 하사한 일이 김수온(1410~1481)이 지은 <봉선사기>에 전한다고 하니, 이름이 절의 기능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능침(陵寢)사찰 가운데 하나인 봉선사는 조계종의 제25교구본사입니다. 경기도권의 또 다른 교구본사 역시 능침사찰의 기능을 가진 용주사로 제2교구본사입니다.

왕릉이 도읍에 인접한 것은 왕이 거동 하는데 하루를 넘지 않는 거리에 능을 설치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왕릉을 수호하고자 하는 효심이 어린 능침사찰의 건립은 또 다른 역사적 아이러니를 제공합니다. 억불의 시대였던 조선이라는 공간에 적지 않은 왕릉 곁에 사찰을 세워 선왕의 왕생극락을 기원했으니 말입니다.

봉선사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존립했던 사찰이지만 그 역사적 기록이 묘연합니다. 충남 서산 보원사지에서 만났던 법인국사 탄문(坦文)에 의해 지어졌다고 전하나,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세조가 붕어(崩御)한 이듬해인 1469년 정희왕후가 지아비의 능침사찰로 봉선사를 크게 중창하면서 사격을 일신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봉선사기>에 의하면 중창불사를 지휘한 이가 한명회 구치관 등이었다니 얼마나 큰 국가적 사업이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전각은 모두 89칸으로 불전과 승료(요사채)가 환히 빛을 발했고 대종을 조성하고 각종 기물을 갖추어 어느 곳의 사찰도 이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고 하니 불사의 규모와 정희왕후의 정성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활기를 얻은 봉선사는 100여 년이 지난 뒤에 불심 돈독한 또 다른 우바이(女信徒)에 의해 거듭납니다.

교종수사찰(敎宗首寺刹).

봉선사의 진정한 이름은 바로 교종의 으뜸가는 도량이라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능침사찰이라는 기능성의 이름은 세속의 이름일 뿐입니다. 교종의 으뜸가는 도량이라는 이름이야말로 도량의 향훈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진짜 이름인 것입니다. 명종 때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한 시대입니다. 불심이 깊었고 대가 세기로 이름난 문정왕후와 불교의 흥망은 양주 회암사의 3화상 부도 앞에서 뼈저리게 읽은 바 있습니다.

명종 6년(1551)년에 나라는 봉은사를 선종수사찰로 봉선사를 교종수사찰로 공포합니다. 수진(守眞) 스님이 판교종사도대사에 임명되어 전국의 교종사찰을 관장했고 1552년에는 승과고시인 교종시(敎宗試)가 봉선사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봉선사는 이를 알리는 석물을 진입로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큰 절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 이미지는 불자들이 그 절을 찾아가는 마음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해인사를 가려는 불자는 반드시 장경각을 참배함으로 법보종찰의 의미를 새기려 하고 통도사를 가는 불자는 보궁에서 절하고 기도함으로 불보종찰의 의미를 느끼려고 합니다. 교종수사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봉선사는 한글로 커다랗게 쓴 ‘큰법당’이라는 편액이 눈을 끌고 그 큰 법당 안에 <법화경>을 한자와 한글로 새긴 동판이 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경전의 최고봉인 <법화경>이 우리글로 새겨진 큰 법당이야말로 교종수사찰의 진면목입니다. 거기에 능엄학림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의 열기가 공부하는 도량의 기운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봉선사 부도밭은 진입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부도밭이라기보다는 비림(碑林)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도는 2기에 불과하고 비들이 길쭉길쭉하게 서서 겨울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부도밭에 모셔진 두 기의 부도는 운허스님((1921~1980)과 운경 스님의 자광지탑(慈光之塔)입니다. 부도밭의 앞 길 건너편은 연못인데 해마다 연꽃이 환하게 피는 여름날 음악과 차와 연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렇게 푸짐한 축제날이면 두 스님도 연꽃향기에 그윽해진 마음으로 후세 사람들의 음성공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부도밭의 맨 처음에는(연꽃유치원에서 들어 갈 경우) ‘중창대시주 정문수행 이월파 정보현행’이라 적힌 키 작은 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재가자를 위한 비가 서 있으니, ‘춘원이광수기념비’입니다. 몸돌의 위쪽에는 전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춘원이광수기념비’라 썼고 가운데는 위에서 아래로 단아한 한글로 새겼습니다. 신학문의 선구자였고 <원효대사> <꿈> 등의 불교소설과 불교사상이 흠씬 배인 시들을 썼던 춘원 이광수. 문학사에서 독립운동사에서 그를 빼놓을 수 없지만 친일의 행적 또한 끝없는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비가 봉선사에 선 것은 그의 팔촌 아우뻘인 운허 스님이 생사의 종적를 알 수 없는 안타까움에 그의 가족들과 뜻을 모아 세운 것입니다. 주요한이 지은 간단한 비문의 마지막 대목을 읽어 봅니다.

“이제 소식 모르는 임을 안타까이 그리는 아내 허영숙과 멀리 미국 땅에서 대학교수와 강사로 봉사하는 아들 영근 딸 정란 정화들이 이 터에 돌을 세워 어버이를 길이 사모하는 뜻을 바치고자 하매 삼가 후학 주요한이 글을 짓고 원곡 김기송이 글을 쓰나이다. 1975년 가을”

친척 아우와 아내, 자녀들의 애틋한 마음이 단아한 빗돌에서 빛나고 있는데, 춘원의 아내는 비가 서던 그해 낙성된 비를 보지 못한 채 병환으로 미국 땅에서 별세하였다는 안타까운 내역도 기록되어 있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정희왕후의 불심 거대한 능침사찰로 사격 일신시켜
월초 스님 신문명 이끄는 인재불사 발원, 운허 스님은 역경 불사 다져
부도밭의 비들 모두 ‘추모비’란 이름으로 통일 ‘독특’



봉선사 경내 모습과 큰 법당.


봉선사 일주문 옆 에는 주인을 모르는 오래된 부도 한 기가 조용히 서 있다.

근현대에 봉선사를 대찰로 중창했던 월초 스님(1858~1940)의 부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양주 군운악산봉선사전주지월초대화상추모비’가 스님의 생애를 잔잔한 서체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인 운허 스님이 글을 지어 1973년에 건립한 추모비입니다. 그러고 보니 봉선사 부도밭의 비들은 모두 ‘추모비’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월초 스님의 행화는 봉선사의 오늘을 있게 한 불보살의 가피였습니다. 15세에 양주 부도암에서 환옹환진(幻翁喚眞) 장로에게 득도하고 법을 이은 월초 스님은 구족계를 받은 후 30대 초반까지 제방의 강원과 선원에서 연마하여 정혜를 고루 익혔습니다. 35세에 남한도총섭을 맡고 다음해에 북한도총섭을 맡으니 1894년 갑오경장으로 승군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팔도도총섭이었습니다. 지금의 은평구 갈현동 수국사를 창건했고 동대문밖에 원흥사를 세웠던 월초 스님은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여 신학문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명진학원을 설립했으니 이것이 오늘날 동국대학교의 뿌리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불교계에 신학문의 근간을 세워주었고 봉선사의 사격일신에 빛나는 불사를 이룬 월초 스님의 비는 입적(1934) 후 40년 만(1973)에 문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0년이 흐른 시간(2013년)에는 아름다운 부도가 조성되어 그 아름다운 덕화를 기리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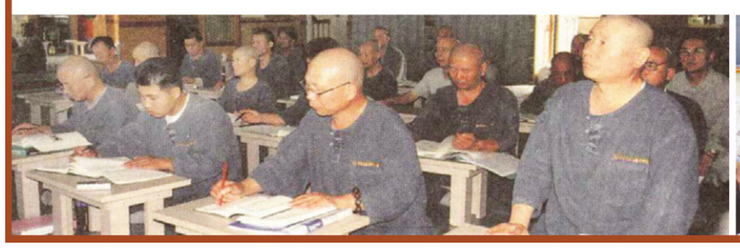
운허 스님의 부도는 사방에 난간을 두른 모습이고 형체는 석종입니다. 부도의 몸돌에는 ‘운허당대종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의 몸돌에는 ‘운허당대종사추모비’라는 글씨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며 빗돌에 행적을 새겼는데 1981년 비를 세울 당시 동국역경원장이었던 영암기종 스님이 비문을 찬했습니다. 운봉 금인석 선생의 서각은 아주 빼어난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니 명문장에 명필이 어우러져 위대한 선지식의 생애를 더욱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 당면과제를 푸는데 선각자가 월초 스님과 그 유지를 이은 운허 스님입니다. 스승인 월초 스님이 신식교육 전반에 대한 갈망을 실현했다면 운허 스님은 역경분야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할 대업을 이루었고 그 기초를 닦아 다시 후학인 월운 스님(현 봉선사 조실)에게 부촉했습니다. 봉선사의 기둥은 바로 월초, 운허, 월운으로 이어지는 굵고 튼튼하고 향기로운 맥입니다. 동국역경원을 설립해 한글대장경 불사를 시작한 운허 스님은 <불교사전>이라는 보배를 연마해 세상에 내 놓았고 여러 경전들을 이치에 맞추어 번역해 역경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운허 스님의 부도 앞에서, 오늘날 몽매한 우리들이 한글로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저절로 숙연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운허 스님이 회갑에 스스로 지었다는 시문을 읽습니다. 오늘은 경인년 정월 초사흘입니다.

흐르는 세월 무심히 보냈으니
환갑을 맞은들 장할 것 없어라
바다에 뜬 좁쌀신세 소동파가 개탄했고
단명도 장수도 없단 말 왕우군이 의심했네
동녘엔 먼동이 트려는데 봄은 이미 깊었으니
가슴에 큰 뜻 품었건만 귀밑머리 희어졌네
떠돌이 나그네길 외롭다 슬퍼말자
아직은 건강하니 여생을 가꾸리라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기 간 • 2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4호선 대아미역 하차후 왼쪽 출구, 신영프라자 301호
입학일시 • 2010년 3월 15일 오후 1시 (공개강좌)
사단법인 라마불교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경기도 군포시 대아미동 34-5호 신영프라자 301호
본원 교학과 Tel : 031-502-5522 / 010-9005-416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

발은 있는데 발자국은 없다

왕과 신하가 다르고, 부귀와 빈천이 다르고,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 그러나 중생과 범부는 같고 부처와 성인이 같고 원숭이와 개는 비슷한 무리이다. 이것이 이(異)와 유(類)의 의미이다. <조주록>에는 다른 것과 비슷한 무리에 대한 남전 스님과의 선문답이 나온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다른 것(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비슷한 것(類)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은 두 손으로 땅을 치고 기어가는 자세를 취했다. 조주 스님은 그런 남전 스님을 바로 밟아서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열반당에 돌아가서도 계속 "후회가 돼. 후회가 돼"하고 외쳤다. 남전 스님은 그것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다.

"도대체 무엇이 후회가 된다는 말인가?"

"덤으로 한 번 더 밟아버리지 버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

師問南泉 異卽不問 如何是類 泉以兩手托地 師便踏倒 卻歸涅槃堂內叫 悔悔 南泉乃令人去問 悔箇什麽 師云 悔不剩與兩踏

조주 스님이 "무엇이 비슷한 무리(類)냐"고 물은 것에 대해 남전 스님은 두 팔과 두 다리로 땅을 짚고 걷는 자세를 취해 4개의 팔과 다리가 비슷한 무리(類)임을 보였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였으므로 틀린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스승의 답이 못마땅하다는 듯 남전 스님을 발로 밟아 넘어뜨리고 승당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 번 더 밟아 버리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쉽다고 토로했다.

조주 스님이 기대했던 유(類)는 과연 무엇일까? 중생과 부처가 원래 없고, 부귀와 빈천도 원래 없고,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것이 유(類)일까? 이것을 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찌됐든 납자라면 조주 스님의 유(類)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전 스님처럼 하지 않고 "발은 있는데 발자국은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남전 스님이 욕실 안을 지나다가 욕두(浴頭 : 목욕탕 관리 소임)가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남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욕두 "목욕물을 데우고 있습니다."

남전 "잊지 말고 수고우(牛)를 불러다 목욕시켜라."

욕두 "네."

밤이 되자 욕두가 방장실로 들어왔다.

남전 "무엇 하러 왔느냐?"

욕두 "수고우께서 어서 욕실로 들어가 주십시오."

남전 "소고삐는 가지고 왔느냐?"

욕두는 대답이 없었다. 조주 스님이 저녁 문안차 들리자,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에게 앞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주 스님이 말하길,

"제게 한 마디 말(語)이 있습니다."

그러자, 남전이 물었다.

"소고삐는 가지고 왔느냐?"

조주 스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재빨리 코를 잡아 끌었다.

남전 "좋기는 좋다만 너무 난폭하구나."

南泉從浴室裡過 見浴頭燒火 問云 作什麽 云燒浴 泉云 記取來喚水牯牛浴 浴頭應諾 至晚間浴頭入方丈 泉問 作什麽 云請水牯牛去浴 泉云 將得繩索來不 浴頭無對 師來問訊泉 泉擧似師 師云 某甲有語 泉便云 還將得繩索來麽 師便近前驀鼻便搜 泉云 是卽是太麁生

확신이 맞다면 소고삐도 확실히 내보여야
선도에 깊은 정점 깨달으면 전체가 보인다

수고우는 일하는 소를 말한다. 잊지 말고 수고우를 목욕시키라는 남전 스님의 말씀에, 욕두는 사원에서 남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는 곧 방장 스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장실로 찾아가서 남전 스님에게 "수고우께서 어서 욕실로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까지는 나름대로 대범한 선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남전 스님이 "소고삐를 가져왔느냐"고 묻는 것에는 더 이상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욕두처럼 어떤 문제를 알음알이로 풀면 조금만 다른 물음이 있어도 막막해진다. 이는 선사가 비슷한 것을 갖고 방향만 약간 틀어서 물었을 때 욕두가 전혀 대답하지 못하게 된 것과 같다. 그래서 알음알이로 안 것이 아닌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선도(禪道)에 대한 깊은 정점을 깨달으면 전체가 보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마치 고봉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보듯 모든 것이 선명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선지식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게 된다.

조주 스님은 소고삐를 가져왔느냐는 질문에 즉시 앞으로 다가가서 코를 잡아끌면서 욕실로 가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 행동은 비록 거칠었지만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의 선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선문답에서는 수고우가 방장 스님임이 맞다고 확신했다면 방장 스님을 욕실로 인도할 수 있는 소고삐도 확실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있다.

그런데 수고우를 욕실로 가게 하는 소고삐를 조주 스님은 거칠게 보였지만, 소고삐가 반드시 이렇게 거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거칠지 않은 소고삐는 어떤 것일까? 만일 욕두가 "수고우도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남전 스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4구(四句)를 떠나고 백비(百非)를 끊은 경지에 대해서 노스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남전 스님은 곧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조주 스님은 말했다.

"이 노스님은 평소에는 말을 잘 하는 편인데도 일단 물어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시자가 말했다.

"노스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조주 스님은 시자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師問南泉 離四句絶百非外 請師道 泉便歸方丈 師云 這老和尙每常口吧吧地 及其問著一言不措 侍者云 莫道和尙無語好 師便打一掌

사구백비(四句百非)는 일체 시비논란을 부정하는 말이다. 근본 자리는 그 무슨 말이나 사유도 감히 붙일 수 없으므로 100번을 부정해 들어가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때 사구백비라는 말을 쓴다.

사구백비조차 끊어낸 경지에 대하여 남전 스님은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야말로 사구백비를 끊어낸 행동이다. 선은 이렇게 간결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답한다. 그러나 조주는 마땅치 않았다. "꼭 이렇게 말이 없어야 하겠느냐" 면서 혼자 투덜댔다.

조주 스님의 이 투덜거림을 눈 여겨봐야 한다. 조주 스님의 투덜거림은 또한 백비를 벗어난 것이다. 남전 스님의 저러한 행동도 결코 백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비를 벗어난 경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시자는 남전 스님을 두둔하고 나섰다. 남전 스님의 행동을 긍정하면 안 된다. 긍정하면 백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시자에게 일장(一掌)을 날렸다.

그런데 백비를 벗어난 경지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일까? 만약 이 납자에게 묻는다면 "시냇물이 맑으면 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9

욕심 없애야 모든게 깨끗하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여 지면 중생들의 마음이 모두 깨끗하여 지느니라.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진다"라고 했다. 또 말하시기를 "불국토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이 깨끗해지면 곧바로 불국토가 깨끗해진다"고 한 것이니라. 삼독의 마음을 누를 수 있으면 삼취정계를 자연히 성취하리라."

[원문]

若自心淨 一切衆生 皆悉淸淨 故經云 心垢卽衆生垢 心淨卽衆生淨 又云 欲淨佛土 先淨其心 隨其心淨則佛土淨 若能制得三種毒心 三聚淨戒 自能成就.

[해설]

경전에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중생들의 마음이 모두 깨끗해 지느니라"라고 말한 것은 마음에서 탐 · 진 · 치 삼독이 끊어지면 중생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써야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욕심을 없애야 되겠죠. 인간들은 욕심으로 인해 괴로움의 고리에 끄달려 삽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삶은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 육신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물질의 세계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은 1초에 99억 번 진동합니다. 지구도 1초에 37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1초 전과 1초 후의 세상이 같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 성현의 눈으로 보면 물질의 세계는 모두 텅 비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물질 역시 마음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과 네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양 착각하고 사는 세계를 중생 · 고통 · 괴로움의 세계라고 합니다. 실상을 바로 보기 전에는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정진하면 자신과 가정 · 세상을 맑게 만듭니다.

정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가 다 마음으로 돼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없으니까 좋고 나쁜 것이 끊어져서 미워할 대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두고 행할 때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진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차고 어리석으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자신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깨끗해집니다.

때문에 경전에서 "불국토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이 깨끗해 지면 곧바로 불국토가 깨끗해진다' 고 말한 것입니다.

또, 중생의 마음이 깨끗해져 삼독의 마음을 누를 수 있을 때 삼취정계를 저절로 성취하게 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끊으려면 우주를 하나로 보고 정진해야 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정진할 때 삼독심을 누를 수 있고, 삼취정계를 자연히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벗어나면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진해야만 삼취정계의 성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삼취정계는 섭율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를 포함한 대승보살의 계법입니다. 대승 · 소승의 온갖 것이 없어 섭(攝)이라 하고, 그 계법이 본래 청정해 정(淨)이라고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作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이 북한의 주술에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대한불교조계종 대표단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2월1일 평양 합의사항에 대하여 무지(無智)와 우행(愚行)에 경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남북불교도 대표들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방향을 합의 하고 공동사업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는 것이다.

· 고려연방제에의한 통일을 추진하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합의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
· 조계종단이 국가와 국민과 불교도들의 뜻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거역할 권리가 없으므로 본 합의는 성립될 수 없다.

둘째, 금강산 신계사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도선사의 108산사 순례단 4~5천명이 3월에 신계사를 순례하겠다는 것이다.

· 우리조계종이 지원하여 복원된 신계사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북한에 불교도가 없기 때문이다.
· 남북 정부간 미합의 상태에서 정부는 순수한 도선사 순례자들을 국민의 배신자로 만들지 않도록 순례신청을 반려하라!

셋째, 우리불교계가 경쟁적으로 조선불교도연맹과 퍼주기식교류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 종교도 없는 북한의 노동당 위장단체인 조불련은 우리불교계를 공산화통일과 외화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구이다.
· 한국대표 불교종단이 호국불교가 아니라 망국불교라는 국민의 비난을 엄중하게 받아드려 참회해야 한다.

[협의사항 / 논의사업 전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협력에 기여해야"

남측 대한불교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공동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조계종과 조불련 간 합의사항 -

1. 양측은 우리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하여 북측지역의 불교문화재 복원보수와 유지관리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2. 양측은 2011년 8만대장경 목판제작 1000년을 맞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3. 양측은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 조계종과 조불련 간 논의된 사업 -

1. 금강산 신계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지순례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2. 평양시내에 불교회관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3. 남측사찰과 북측 주요사찰간의 결연을 통해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한다.
4. 올해 부처님오신날 즈음에 평양 광법사 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5.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을 맞이하여 금강산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또는 남측과 북측사찰에서 동시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6. 남측불교단체와 조불련간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0. 2. 18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 박 희 도

참여단체 :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자유시민연대, 해외참전전우회, 상이용사불자회

니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게 있어야 해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서울 안암동 보타사에 딸린 5층짜리 건물의 한층을 얻어 쓰고 있다. 방문을 두드렸을 때 스님은 TV를 보고 있었다. 김석철씨의 건축 특강. 책상 위에는 <생각의 탄생>이 엎어져 있었다.

"그래 왔나. 허리 수술하고 입식으로 싹 바꿨다. 앉으래이. 뭐 마실래?"

기자를 맞이하는 인사와 당신의 근황을 앞뒤 없이 삽시간에 풀어놓았다.

"중문과 답사팀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엊그제 왔다."

이번에도 뜬금없다. 10여 년 전부터 연세대 중문과 이규갑 교수가 모임을 짜 1년에 한 차례 중국을 답사하는데, 거기에 함께 다녀왔다는 얘기다. 답사팀은 매년 '한자' '지필묵' '집' 등의 주제를 정해 10일 쯤의 일정으로 다녀온다고 한다. 이번에는 '소수민족'을 주제로 중국 남서부의 구이저우(貴州) 일대를 둘러보았다. 이규갑 교수는 임동석 건국대 교수, 강혜근 충남대 교수, 김병기 공주대 교수 등과 함께 1993년부터 대장경 전산화의 이체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준 오랜 인연이다.

허리가 아파 지난해 12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종림 스님은 그새 동해와 서해를 건너 1월에는 일본, 2월에는 중국을 다녀왔다. 아픈 허리를 끙끙대면서도 미뤄놓을 수 없는 일들이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40년 넘도록 매달려온 고려대장경 전산화!

일본을 다녀온 이유는, 남선사에 소장된 초조대장경 1800여 권의 디지털화 마치고 보고회를 하기 위해서였다. 6년간의 작업이었다. 이로써 초조대장경과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의 비교연구가 훨씬 수월해졌다. 경전의 집합과 분류, 초조에서 재조로 이어지는 과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전산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오래 된 것의 현재화, 그래서 지금 또는 미래의 쓸모에 값하는 것일까.

"문화재는 지난 문화 활동의 산물이다. 이런 물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게 하는 것이 문화재가 가진 가치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취지는 그것이 문화의 종(種)이라는 데 있다.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종으로 작용할 때 살아 있는 문화재가 되는 것이다."(<종림잡설-망량의 노래>에서 따옴)

그는 18년째 대장경 전산화 일을 하고 있다.

"자아의 벽을 깨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산화란 정보가 오히려 자아의 성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괴물을 만들어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불교운동의 지향점을 찾고, 불교라는 이름에 걸맞는 방법론이 분명 경전 속에 있을 텐데, 그것을 찾아내보자는 막연함 혹은 뚝심이 그를 대장경 속에 빠지게 했다. 전산화는 대장경을 널리, 잘 보게 하는 수단이다. 결국 그가 가리키는 것은 대장경 속의 지혜이다.

세상에 다 맞는 게 어딨고, 다 틀린 게 어딨나?

자기를 위안해야…일상만 따라가지 말아라

종림 스님에게 대장경 전산화는 그의 또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시작은 심심하고 싱겁기 그지없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불교를 새롭게 해보자는 논의가 많았다. 그런데 그 무렵엔 쳐다볼만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빌빌거리고 있었다. 일본에 가 있는 도반들이 오라고 불렀다. 일본에 1년쯤 있었는데, 국제미아들이었다. 7~8명이 강가에 모여 신세 한탄으로 시간을 보냈다. 무슨 인연이있는지 일본의 대장경 전산화하는 일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또 강가에 모였는데, 어느 날 얘기 끝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보자, 좋다, 하자, 그리고는 "종림이 니가 해라"로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래서 대장경 전산화 불사가 시작했다.

돌아와서 해인사에 방 하나 얻어서 고려대장경연구소라는 간판을 걸었다. 1993년이었다. 그런데 일이 엄청 커져버렸다.

"내가 이런 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헐렁하게 살아야 종림다운데, 나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순을 넘기지 않으려 했다."

그는 아나키스트다. 목적 또는 목표를 기꺼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학적 아나키스트임이 분명하다. 그를 줄가로 이끈 요인이다. 누구나 그러했듯 그도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유토피아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이며, 정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는 것을 알았다.

"유토피아 사상이 지닌 전체주의 성향은 으레 독재체제나 닫힌 사회를 낳고 만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사회의 구조와 질서 또는 정치제도의 변혁으로 인간과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역사에 비추어보건대, 정치적 이상만을 남긴 채 인간 존재를 구원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 같다."(망량의 노래)

한때 초탈에도 매료됐지만, 안식처가 아니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자족을 추구하는 만큼이나 사회윤리의 실천이 불가피한 존재다. 이런 바탕 위에서 초탈의 철학은 이상과 실천의 괴리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했다. 불교에서 길을 찾으려는 뜻이었다. 1972년, 애초의 출가 사찰은 월정사였다. 그런데 그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데가 아니어서 해인사로 갔다. 총무원장을 지냈던 지관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된 것도 어찌어찌하다가 그리 됐다. 아직 계 받을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종근이란 스님이 "같이 계 받자" 해서 도반 따라 느닷없이 계를 받았다. 그로부터 어느덧 38년이 흘렀다.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을 뒤지며 자신과 사회와의 괴리를 줄이려 했다. 출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잡았다 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줄줄 빠져나가버렸다. 끝내 연기(緣起)의 이치가 그가 도달한 지점이다.

"세상에 다 맞는 게 어딨고, 다 틀린 게 어딨나? 없다. 서로의 장점을 이어주는 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선종, 대승불교, 원시불교가 있는데, 어느 것을 밀어내고 어느 것을 세울 거냐. 그러지 말고 각각의 장점을 들춰내어 이어줘야 하지 않나. 그 끈이 있을 거다. 그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연기로 풀어내면 나올 것도 같은데…. 내 생각이다."

이향소참(異向小參)이란 참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종림 스님은 …

1944년 경남 함양 출생.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졸업. 1972년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도서관장, 월간 <해인> 편집장,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 연구원, 대흥사 선원장, 세계전자불전협의회 공동의장,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2년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설립해 대장경을 디지털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종림잡설-망량의 노래>가 있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상담가 2010학년도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경은 방대한 상담사례집,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인가 2년제 특수교육기관으로, 불교의 기본소양과 상담심리분야의 전문능력을 두루 겸비한 불교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상담가의 원력을 세우신 분들을 모십니다."

불교상담대학장 **담교 스님**

▣ 불교상담심리사란?

불교상담심리사는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 및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불교상담개발원에서 그 자격을 관리하는 불교상담심리전문가, 불교상담심리사 1급, 불교상담심리사 2급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요망)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원서문의 및 접수

조계사 교육관 4층 불교상담개발원
☎ 02)737-7378, 8803 FAX 02)737-8802
www.jabi24.org에서 불교상담개발원 검색

*** 접수마감 : 2010년 2월 말까지 ***

불교상담대학

■ **교육일정**
- 개 강 :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 교육기간 : 2년제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수, 목 저녁 6시 30분 ~ 9시 40분
- 모집정원 : 40명 내외

■ **불교상담대학 교과과정**

1학기	불교교리(필수)	불교역사(필수)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개론
2학기	불교상담(필수)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전화상담실습
3학기	경전의 이해(필수)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사이버상담실습
4학기	불교심리학(필수)	학습심리학	적응심리학	면접상담실습

■ **입시요강 및 접수일정**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 대학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 입 학 금 : 2만원
- 등 록 금 : 4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4452 (예금주 : 불교상담개발원)

※교육비 할인대상
- 자비의전화 상담원, 포교사 등 종단 포교자격자 및 군법사
- 종무원, 협력단체 및 사찰 직원, 동국대 불교대학생
- 조계종단 스님 및 이사 사찰 신도
- 본원 이사사찰 신행상담실 상담원

▣ **불교상담대학 졸업특전**
-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응시자격 부여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는 교계최초의 전문상담기관인 '사)자비의전화'의 각 상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 (전화상담실, 사이버상담실, 청소년사이버성상담실, 면접상담실)
- 사단법인 자비의전화의 법인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워크숍 및 행사에 참가

불교상담대학원

■ **교육일정**
- 개 강 :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 교육기간 : 2년제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금요일 9시 30분 ~ 17시 30분까지
- 모집정원 : 30명 내외

■ **불교상담대학 교과과정**

1학기	초기불교 수행과 상담(필수)	대승불교 수행과 상담(필수)	성격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
2학기	불경과 상담	자아초월심리학과 불교상담	정신역동상담 고급집단상담
3학기	유식학과 상담	수행 실참 인지행동치료	대상별 상담
4학기	명상과 심리치료	특수분야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사례발표/슈퍼비전)

■ **입시요강 및 접수일정**
- 입학자격 : 1. 본 대학의 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
  2. 정규 대학 과정 이상, 또는 상담관련학을 전공하여 졸업을 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3. 종단에서 인가한 불교교육기관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로 필수과목을 별도 이수해야 함.
  4.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5. 타 교육기관에서 본교 개설과목 가운데 일부를 이수한 경우, 나머지 과목에 대한 과목별 수강이 가능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 입 학 금 : 3만원
- 등 록 금 : 6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4452 (예금주 : 불교상담개발원)

▣ **불교상담대학원 졸업특전**

1. 불교상담심리사 1급 응시자격 부여 2. 자격증 소지자는 심리평가 및 불교적 심리상담 가능
3. 자격증 소지자는 불교상담에 관한 연구가능
4. 자격증 소지자는 교계 내외의 상담 행정업무 가능
5. 자격증 소지자는 불교상담심리사 1급 및 2급 수련중인 자에 대한 멘토링 가능

공의 입장서 세상 쳐다보고파

<空>



모임을 즐겼던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

"내 주위에 한문, 서지학, 철학, 불교학 하는 별놈들 다 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자고 해서 좋다고 했다. 이향은 이류중생(異類衆生)이란 말에서 따온 것인데, 동류만을 이해할 게 아니고 다른 류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소참은 작은 모임이란 말이고. 무슨 조직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듣자는 것이었다."

매월 한 번 모임을 열었는데, <다윈의 식탁>의 저자, 원자력 연구자, 검사 등등의 사람들도 불러서 얘기를 나눴다. 2년을 이어왔던 모임이 얼마 전 중단됐다. 맞춤한 모임방을 제공했던 달마사가 큰 공사에 들어갔고, 마땅한 모임방을 찾는 게 또 일이 되어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종림 스님은 만화를 무척 좋아한다. TV와 인문 · 물리 · 생물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책을 즐겨 본다. 어느 글에서 "꿈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라리 도사나 될 걸 그랬나?" 그랬듯 여전히 초탈을 꿈꾸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만화와 TV는 그만의 에너지 충전법인데, 이것 말고 또 있다. 여행이다. 1년이면 열 번쯤 외국을 다녀온다. 대부분 대장경 전산화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무 때문이다. 이런 여행 말고 때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슬쩍 빠져나온다.

"니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게 있어야 한다. 이건 실패가 없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안해야 한다. 일상만 따라가지 말아라. 니가 좋아하는 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

슬쩍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의 변명 같기도 한 그의 여행론 혹은 충전론이다.

내친 김에 몇 군데 추천해달라고 청했다. 돈황, 샹그릴라, 카라크룸, 에어즈 락(Ayers Rock), 수미산 등의 지명을 기억해내더니, 수미산과 에어즈 락은 한번 가볼만 한 곳이라고 말했다. 에어즈 락은 호주의 사막 한가운데 불끈 솟은 바위 덩어리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남쪽으로 335km 떨어져 있다. 높이가 348m에 둘레가 9.4km에 이른다. 단일 암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호주의 원주민인 애버리진들이 신성시하는 곳이다. 종림 스님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꼼짝 않고 있었다"고 했다.

종림 스님은 대장경연구소가 오래도록 있었던 이태원에 가끔 가고, 가고 싶어 한다. 공짜로 만화책을 빌려줬던 만화방, 공짜 목욕탕, 공짜 식당이 그대로 있다.

"이태원은 우리 사는 거랑 딱 맞아. 거기엔 시간 개념이 없다. 밤낮이 없다.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오가는 국제 거리다. 큰 길을 가운데 놓고 위에는 부자들의 성이고, 아래는 골목길에서 화투치는 풍경이 있고. 이질적인 것이 한데 어우러진 데다."

60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순일곱이다. 대장경 전산화의 마무리는 아직 멀다.

"후원자들에게 고맙고. 내년이면 나는 끝이다. 책보고 좋아하는 것 할기다."

종림 스님은 작년에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재미있게 봤다고 했다. 진화론에도 재미를 붙였다. 프로이트 얘기로 이어졌다.

"프로이트는 말년에 유일신적인 사고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그의 생각거리였다. 그도 유태인이어서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쫓겨나 영국에서 활동했다. 유태인을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유태인이 어떻게 했길래 미움을 받는가, 말년에 이 의문을 푸는 글을 남겼다. 아마 <모세와 유일신앙>일거야. '유일'이 어떻게 보편화될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나카자와 신이치의 <대칭성 인류학>도 재미있게 봤다."

<대칭성 인류학>은 나카자와의 카이에 소바주 시리즈 중 하나로 밖에서 본 불교라고 부제를 붙일 수 있는 책인데, 신화를 통해 불교와 세계를 보는 시각이 흥미롭다.

"내년에 대장경 일 그만 두고, 책 보고 가끔 글도 써볼기다. 생각대로 될지는 나도 모른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공(空)의 입장에서 세상을 쳐다보는 일을 할 거다."

글=정성운 기자 woon1653@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3. 비구니 독립운동가 상근 · 윤호 스님

독립운동 자금을 담당한 비구니 상근 스님은 14세에 출가해 금강산에서 선을 익혔다. 상근 스님은 3 · 1운동 당시 상경해 만해 한용운, 백용성, 백초월, 이종욱, 신상원 스님 등 기미독립운동에 참가한 스님들을 도와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숭인동 청룡사 주지였던 상근 스님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며 불교계 독립투쟁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백용성 스님이나 백성욱, 김법린 등 많은 스님들은 후세의 노력으로 독립운동 활약상이 널리 알려졌으나, 상근 스님만큼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상근 스님의 당호는 인월당이며, 어머니와 언니도 모두 출가해 3모녀가 비구니스님이 된 스님집안이었다. 상근 스님은 1872년 9월 6일 한성부 동부 교동에서 태어났다.

10세에 어머니가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청룡사에서 출가해 법명 창수를 얻었다. 이어 그 해 여름에 언니인 금전 스님이 창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상근 스님도 2년 뒤인 1883년 9월 24일 12세로 창수 스님을 은사로 청룡사에서 출가했다.

나는 상근 스님의 상좌인 윤호 스님과 인연이 닿았다. 윤호 스님은 1907년 광주에서 태어나 다섯 살에 청룡사 주지 상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금강산 관음암에서 살던 스님은 12세에 상근 스님이 청룡사 불사를 시작하자 곁에서 시봉했다. 나이가 들자 어릴적 추억이 서려있는 금강산을 다시 찾아 21세에 신계사 법기암에 들어가 석주 탄월 스님 밑에서 선을 익혔다. 윤호 스님이 23세 때는 마하연으로 내려와 만공 스님을 모시고 세 철을 지냈는데, 만공 스님은 윤호 스님에게 '백련(白蓮)'이란 호를 내렸다. 25세에 다시 청룡사로 와서 상근 스님을 시봉하며 포교활동에 전념했다.

윤호 스님은 30세에 선학원 일봉 스님께 비구니계를 받고 35세 때 선지식을 찾아 만행을 하다 오대산에서 한암 스님을 뵙고 '묘각(妙覺)'이란 법호를 받는다.



청룡사 대웅전.

독립자금 조달 상근 스님, 말년에 도제 양성·가람수호 힘써

그 뒤 윤호 스님은 다시 청룡사로 돌아와 노쇠해진 상근 스님을 시봉하며 평생을 보냈다.

상근 스님이 말년에 도제 양성과 가람수호에 전력을 다하며 서울 청룡사 증축불사에 뜻을 뒀기 때문에 윤호 스님은 그 유지를 이어 받았다.

청룡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공민왕 왕비 혜비와 단종의 정순왕비, 태조의 제2왕비 소생인 경순공주가 출가하는 등 궁실여인이 출가한 사연이 많았다. 청룡사는 조선왕실 여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연유로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에도 서울 사대문 인근에 존재할 수 있었다.

조선조의 갖은 핍박과 법난 속에서 지켜온 호국사찰에서 한 비구니가 어렵게 불사를 일으키니 동대문 일대의 불자들이 모두 불사에 동참했다. 동방이 밝아야서 · 남 · 북이 밝아지기 때문에 상근 스님은 청룡사 불사를 통해 동방 청룡으로부터의 호국안민을 기원했던 것이다.

윤호 스님은 상근 스님의 곁에서 평생 스님이 금강산 마하연, 장안사, 표훈사, 금강산 신계사와 수원 용주사, 예산 정혜사, 서울 개운사, 오대산 월정사 등에 무상보시하는 것을 보아와 불사에 아까움이 없었다.

윤호 스님은 상근 스님의 유지에 따라 극락전과 시왕전, 산신각, 심검당, 우화루를 중창했으며 절 주위 600여 평의 땅을 사 사격을 높였다. 불교계의 독립정신을 간직하기 위해서였다.

청룡사는 이러한 뜻을 이어 지금도 매주 초하루 화엄신중기도를 통해 호국안민과 불일증휘를 기도하고 있다. 탄허 스님이 <신화엄경>의 대작불사를 이곳에서 완성하기도 했다.

현재 청룡사는 유치원을 경내에 마련해 운영하는 등 중창불사에 뜻을 모아준 지역불자들의 성원을 회향하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호국불교의 맥을 정신과 물질 양면에서 지켜 온 두 스님, 이러한 스님들이 있기에 호국불교, 민족불교로서의 위상이 국민들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두 스님의 정신이 어려있는 청룡사는 비구니스님들의 뼈저린 절개와 민족이 혼을 보듬고 오늘도 서있다.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족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禪 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 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35> -끝-

경제학과 불교는 삶의 양 바퀴와 같은 것

앞바퀴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확해야

불교는 인간을 감싸 안는 부드러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에 반해 경제학의 이미지는 차갑다. 현대 경제학이 말하는 '경쟁'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르면 인간을 욕망 달성을 좇아 질주하는 기계와 같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 글을 연재하면서 접한 여러 불교관련 책에는 '경제성장을 만능으로 하는 경제학은 안 된다' '욕망 추구를 찬미하는 현대경제학의 흐름이 문제다'라는 비판적인 논점이 많았다. 필자 자신도 글로벌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맹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도 있다.

본래 종교나 학문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는 경제학도 불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전술한 바 있듯이, 불교의 기본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만족=충족/욕구'라는 방정식이 있다. 이 식에 따르면 행복한 인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도출된다.

하나는 분자의 '충족'을 크게 하는 것이다. 갖고 싶은 것이 얻어지면 만족은 높아진다. 또 하나는 분모의 욕구를 작게 하는 것이다. 갖고 싶다고 하는 욕구 자체를 줄인다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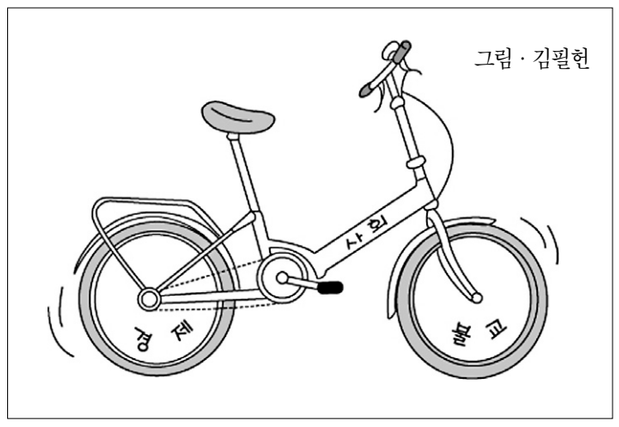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苦)으로 생노병사 4가지를 들고, 중도정신 즉 팔정도(八正道)를 실천 수행함으로써 괴로움이 있는 현세(此岸)를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彼岸)로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 사람을 부처(佛陀)라 부른다. 불교는 괴로움의 원천인 번뇌 집착을 가진 더러워진 마음에서 벗어남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불교는 괴로움을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이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병의 고통은 '더욱 살고 싶다' '병이 얄밉다' '어째서 나만 이 지경이 됐는가' 하고 한탄하는 마음(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르친다.

'병'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선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불자 작가 이쯔끼 히로유키(五木寬之)는 그의 저서 <큰 강속 한 방울(大河の一滴)>에서 '인간의 생명은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 속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한 방울의 물은 강을 따라 흘러내려 바다가 되고,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빗방울이 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대자연의 섭리에 스스로를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몸이 살아 있는 것은 아니고, 위대한 자연의 섭리에 의해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살고 싶다'고 하는 현세의 삶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해 변하지 않는 괴로움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음(死)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지위나 빈부 차이에 관계 없이 느낀다. 늙고 병들어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구원해 준다.

부처님오신날 같은 불교 4대 명절이나 사찰행사에 참가해 보면 연로자의 참석률이 압도적이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는 안 된다. 늙은 몸이 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데,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석가여래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된다.



경제학은 어떨까? 경제학은 지나친 소비의 절제와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유한한 물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실현하는 장이 경쟁시장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완전경쟁'이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의 낭비를 허용하지 않는다.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계기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완전경쟁의 시장경제에서는 필요한 것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장을 확대한다면 만들어지는 상품의 수도 늘어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쉽게 된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의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후생도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학은 번뇌의 세계에서 경제활동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경제학과 불교는 삶에 필요한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결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한다면, 경제학은 자전거의 뒷바퀴와 같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동기부여)는 문명사회를 진전시켜 물질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뒷바퀴만으로 자전거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앞바퀴의 역할을 하는 불교가 필요하다. 앞바퀴는 자전거의 행선지를 컨트롤하고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확한 각도로 체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불교와 경제학은 고도의 논리성으로 감정의 기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은 고통에 직면하면 분노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지배받게 된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하면 누구나 사고를 일으킨 상대에 대해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엄벌에 처하게 한다거나 상대가 어떤 방법으로 사죄해온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끝내 아픈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밖에 없다. 불교가 가르쳐주는 고통으로부터의 해탈법은 매우 논리적이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에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버스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길을 잘 양보해주는 것은 왜 그런가?' 라고 질문 받았을 때 경제학에서는 '버스 운전자는 성급해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답을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감정의 기복을 조절한다.

어느 사찰 주지스님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법문을 듣고 귀가하던 사람이 차에서 발을 밟혔다. 보통 때라면 불쑥 화를 낼 수 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때, 왜 상대방의 발이 자신의 발과 겹쳐지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화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부처님은 뭇 중생에게 감정에 따른 삶이 아닌, 이성과 논리 · 합리에 따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㉟ 검려 <끝>

허달의 불교와 코칭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의 열정

이번 글이 연재를 끝막음하는 글이 될 것 같아, 어제 오늘에 걸쳐 지나간 글들을 모두 한번 읽어 보았다.

지난 해 6월 10일부터 35번째의 글이 된다. 살펴보니 몇 차례는 불자 여러분께 리더십과 코칭에 대한 지식을 중언부언 전달한 셈이 되었고, 중간 몇 편은 코치의 마음가짐, 코칭의 기술적 측면, 코칭의 작동기제(作動機制) 등이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소회가 있어, 그동안 경험한 코칭의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적어본 셈이 되었다. 또 '코칭도 불법도 그 이름을 좀 떠나면 어떠랴'라는 내용의 글을 쓴 뒤에는 스스로 글쓰기의 부담이 좀 가벼워져서 몇 편은 여행기, 소묘(素描), 수상(隨想) 형식을 빌어 과거부터 지니고 있던 잡문들을 끌어다 쓰거나 자기표절을 해 구성한 것도 있었다. 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으나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운 바 없지 않다. 마치 술에 취해 왕희지 보란 듯이 일필휘지 써내린 난정서(蘭亭序) 한 줄을 맨 정신에 다시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불교와 코칭'이란 주제부터 버거웠는데, 결국 리더십, 코칭에 익숙지 않은 불자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리더십과 코칭의 지식을, 불교에 익숙지 않은 코칭 업계 분들에게는 여기저기서 어깨너머로 들어 얻은 불교에 대한 알음알이를 이리저리 벌여놓아 도회(韜晦)한 꼴이 되었으니 눈 밝은 이가 보면 여북하겠는가? 게으른 자의 겉핥기 삶이었으니, 남과 나눌 것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다만, 이 글들을 통해 내가 자처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나는 그 역할의 사명을 맡을 자격이 있었을까? 글쓰기를 맡기 전에 했어야 할 질문을 한 박자 늦게 자문하면서 늦었지만 좀처럼 얻기 어려운 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받은 행운이라 하겠다.

15년 전쯤의 일이다. 현천서실에 자주 들르던 원로시인 민영(閔暎)씨가 나를 서실 구석으로 가만히 부르더니, 손바닥만한 책을 한 권 주셨다. 1948년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한 작고 화가이자 수필가인 김용준의 글 모음 <근원수필(近園隨筆)>을 당신이 발문해 재발간한 범우문고의 문고판 서적이었다. 김용준은 자신을 원숭이나 노새와 다름없다고 비하하여 근원(近猿), 검려(黔驢) 등으로 자칭했다. 나중 그 음을 따서 근원(近園)이라 호를 정했다고 한다. 책을 읽어보니 서화(書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애정, 거속(去俗)한 예술가의 삶을 유려한 필치로 써낸 향기 높은 수필집인데, 자신을 검려라 칭한 소회는 아래와 같았다.

'중국 검주(黔州)라는 땅에는 호랑이는 있으나 나귀는 없었는데, 어느 날 장사꾼 하나가 나귀 한 마리를 끌어다 산 밑에 매어두었다. 호랑이라는 놈이 하루는 내려와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동물이 떡 버티고 섰는데, 거무튀튀한 놈이 커다란 눈깔을 껌벅거리며 섰다가 소리를 냅다 지르는 꼴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보였던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다. 그러고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귀란 놈, 시시때때로 소리를 질러대고 시원찮은 발길질을 선보이니 호랑이가 가만히 보아하니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다 여겨 이리저리 다루어 보고 마침내는 물어뜯어 죽여버렸다'는 것이다.

김용준이 자신이 그림 그리는 일, 수필 쓰는 일을 어디선가 멈추지 못하고 마침내 못난 재주를 다 드러내어 세인의 비웃음을 샀다고 겸양하는 일을 나귀의 어리석은 발길질에 비유해 자신을 검려라 칭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지하철에서 무심코 눈 닿는 곳에 붙은 글들을 읽곤 하는데, 최근에 읽은 것 중 기억에 남은 글은 오케스트라의 명 지휘자 번스타인의 말이었다. 누군가 번스타인에게 물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려운 악기는 어떤 것인가요?"

"제2바이올린이지요." 번스타인이 주저 없이 대답했다. "제2바이올린을 제1바이올린과 같은 열정을 갖고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기 어렵거든요."

자, 이제 어리석은 나귀의 발길질 같은 글쓰기를 마친다.

그러나 못난 재주이고, 제2바이올린의 역할이었을 망정, 제1바이올린 주자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았었다면, 그런 자부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살의 길도, 코치의 길도, 또 어쩌다 잠시 반연된 잡문 쓰는 일도 무슨 분별이 있어 제1 · 제2를 나눌 것인가? 다만 서산대사께서 선가귀감에서 경계하신 바, 빈 수레를 한갓 말재주로 칠갑하여, 변소에 단청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적이 두려울 뿐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호 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들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3월 8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3월 9일 화요일

제천 금강사 기로원 입소자 모집

실 버 타 운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님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방1개, 베란다, 욕실)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입소비용 : 평생 거주 5,000만원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누구든지 자유롭게…

김민지 'You are Buddha' 展
3월 2일까지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

14일은 설 연휴인 동시에 '연인들의 날'인 밸런타인데이였다. 밸런타인데이에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해줘야 하지?"라는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밸런타인데이는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 숙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화이트데이가 남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김민지(26)씨의 '특별한 주얼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물리스트에 항상 1순위로 올라오는 주얼리인데, 새삼스레 뭐가 특별하냐고 물으면 큰 오산이다. 김씨가 만든 주얼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불교 주얼리'이기 때문이다.

"어? 그럼 단주나, 염주 아냐? 그건 너무 촌스럽잖아"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런 걱정 또한 접어둬야 한다. 그가 만든 '불교 주얼리'는 촌스러울 거라는 인식과 달리, 그 만의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주얼리를 선사한다.

김씨의 주얼리들은 만(卍)자 모양부터, 연꽃, 부처님 모양까지 다양한 불교의 상징들이 나투고 있지만 촌스럽다는 느낌보단 "한번 착용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자극한다. 그만큼 그의 주얼리는 범상치 않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단순하게 '만'자로 된 커플반지나 목걸이 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주얼리를 만들게 됐죠.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주얼리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쑥스러워하는 듯하면서도,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과 패기가 묻어 나온다. 그만큼 자신이 만든 주얼리에 대해 자부심이 남다르다는 뜻 일거다. 김씨의 이런 재능과 끼는 이미 제1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는 공모전에서 2위로 입상할 만큼 디자인에 대한 감각과 재능이 남달랐다.

"원래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동국대 미술학과로 편입해 불교미술을 다시 공부했어요. 지금은 단지 제가 만드는 주얼리 상품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어요"



김민지

김씨의 이런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주얼리는 이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만의 '보석'같은 존재가 됐다. 김씨가 정말 당차면서도 어딘가 남다른 젊은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교를 모티브로 주얼리를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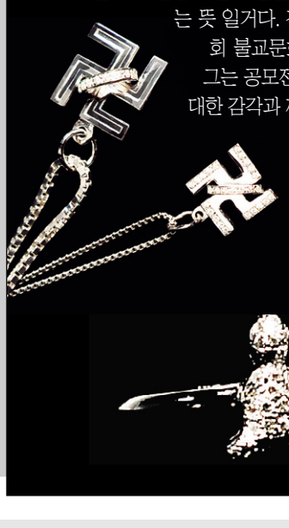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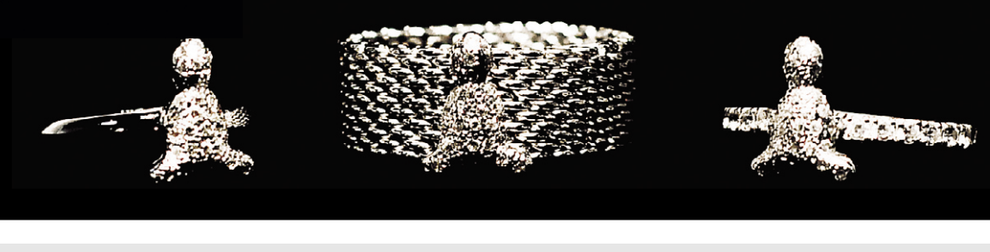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부처라는 존재가 위대하고 큰 존재이지만, 누구든지 괴로움 없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내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편안해지는 삶을 주얼리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민지씨의 작품은 이처럼 단순히 몸을 치장하기만을 위한 주얼리가 아닌, 작품을 통해 세상에 자신과 불교를 드러낼 수 있는 값진 보물이다. 작지만, 그 작은 주얼리 안에 숨어있는 불교에 대한 그의 마음이 보석 보다 더욱 빛난다. 이런 속 깊은 그의 마음이 담긴 불교 주얼리 상품과 작품들은 현재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40여 종이 넘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불교를 통해 디자인하고 싶다"는 김민지씨. 김씨의 주얼리 작품들은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에서 3월 2일까지 열리는 'YOU ARE BUDDHA'전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상품들은 불교용품전문쇼핑몰 참세상(www.chamkorea.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전통춤 출 때 가장 신나요"

27일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할 윤송미씨



"전통춤만 생각하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제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은 바로 전통춤을 추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과거, 사람들의 인사가 주로 "식사는 하셨어요?"였던 것이 요즘은 "하시는 일은 할만 하세요?"로 바뀌었다. 이 인사에는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사느냐" "당신도 나처럼 힘든 상황이냐" 등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만큼 세상 살기가 각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대에 따라 인사법은 바뀌기 마련이라지만 "하시는 일은 할만 하세요?"라는 질문은 인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꺼림칙한 구석이 있다. 한국전통무용계의 신예인 윤송미(47 · 사진)씨는 이런 질문에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그녀는 무조건 '예스(Yes)'이다.

"초등학교 학예회 때 처음 한국무용을 접했어요. 그 후 계속 마음 한켠에 한국무용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죠. 무용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래서인지 더욱 애착이 가요. 이제는 무용이 제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이런 윤씨에게 한때 무용은 단지 TV속에 나오는 동경의 대상에 불과했다. 윤송미씨는 과거 15년 이상을 직장생활과, 의상코디네이터, 사업을 전전하다 8년 전 한국전통무용의 길에 들어섰다.

"손동작 하나하나, 춤사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저런 춤을 추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접고 춤추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는 매일 4~5시간을 춤 연습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08년 대구살풀이춤의 이수자가 됐다. 6년 이상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춤 연습에 매진한 윤씨는 짧은 무용경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로무용수들과 나란히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르고 있다.

결국 윤씨의 실력은 최고의 춤꾼만 찾아 무대에 올리기로 정평이 난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윤송미씨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명인명무전'에서 대구살풀이춤을 선보이며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다.

박동국 대표는 "윤송미씨가 처음 춤추는 것을 보고, 굉장히 영리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춤에 대한 몰입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소개했다.

"첫 무대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충청도의 한 선원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공연할 때였는데, 제 공연을 보고 예쁘다고 해 주시던 스님과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윤송미씨는 현재 정월 대보름을 맞아 동국예술기획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함께 기획한 '제31회 한국의 소리와 몸짓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윤송미씨의 춤사위가 무대를 수놓을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은 2월 27일 오후6시 30분 서울 서대문문화회관 대극장 열린다. (02)360-8560

이은정 기자

선인들의 이야기책에 빠져보자

국립중앙도서관 3월 31일까지 고소설 전시회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이 3월 31일까지 고소설을 주제로 '선인들의 이야기책 속으로' 전을 개최한다.

고소설의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 옛 선인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영웅소설, 장편소설, 애정소설, 전기소설, 판소리계소설, 중국소설 등 다양한 고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는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와 한글소설 <홍길동전> <구운몽> <흥부전> 및 희귀소설로 알려진 <남홍량전> <천리구> <니화전> <해당향>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작인 <춘향전>의 불어번역본 <Printemps Parfume>과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된 다양한 판본 및 다채로운 표지의 딱지본과 사진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 자료들은 <춘향전>의 시대적인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교육적으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 모철민 관장은 "이번 전시를 위해 다양한 고소설의 자료를 선별했다"며 " 일반인들에게 고소설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알리고자 이 같은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02)535-4142

이은정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뻣뻣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칼라챠크라, 배요온대, 다보명차, 아마따차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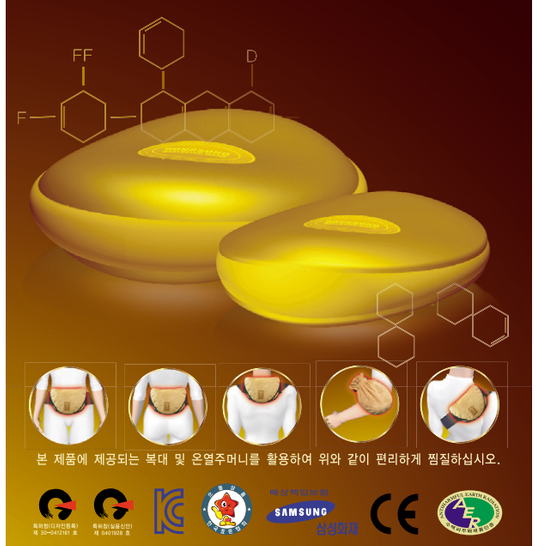
www.법왕정사.kr

GOLD Bulgama

황금빛 찜질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찜질"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찜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뜸 · 찜질 체험 •
• 삼마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장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파동요법, 유해파 중화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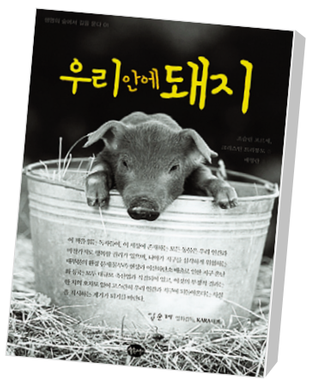
본 제품에 제공되는 복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찜질하십시오.

(주)동성웰빙홈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우리 안에 돼지

누구를 위한 사육인가



봄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아들이 점심에 햄을 구워달라고 한다. 햄을 참 좋아하는 아들인데 평소에는 잘 사주지 않는다. 겨우 졸라야 먹을 수 있던 햄이 주방에 있는 걸 발견하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햄을 구워달라고 아우성이다. 햄은 설날이라 선물로 들어온 것이었다. 구운 햄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갑자기 어제 읽은 <우리 안에 돼지>가 생각난다.

암퇘지는 오직 새끼돼지를 낳기 위해 존재한다. 인공수정을 통해 새끼 낳는 일만 반복하던 암퇘지는 더

축사 노동자들 윤리적 고통에 시달려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되면 결국 도살되고야 만다.

일 년 동안 2~3번의 임신을 통해 27마리의 새끼돼지를 낳게 되는 암퇘지는 젖을 먹기 위해 달려드는 새끼돼지들 때문에 항상 젖꼭지의 압박에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암퇘지의 유두 손상을 막기 위해 새끼 돼지의 이빨을 깎거나 간다.

또한 새끼 수컷돼지는 특유의 냄새를 없앤다는 이유로 마취도 없이 거세를 당하는데 이 모두가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벌어지는 행위들이다. 돼지들은 이렇게 공장형 밀폐식으로 사육되고, 대규모 양돈 경영방식은 돼지들을 기계처럼 다룬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비단 돼지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다. 공장식 축사에서 일하는 사육자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윤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공장식 축사에서 일하는 솔렌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 돼지들이 무더기로 죽은 날 부엌에서 혼자 운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이니, 사육사들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동물을 사랑하는 어린 소녀 솔렌의 눈에 비친 돼지들의 삶은 책장을 덮을 때까지 내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모든 가축 사육방식의 어두운 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다른 방식인 동물을 가두지 않고 풀어서 키우는 전통적인 사육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꼭 절망적이거나 또 현실적으로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육식에 대한 비난을 할 수도 없다. 다만,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햄 하나를 사더라도 멈칫하게 될 것이고, 날로 늘어가는 인공 식품을 무턱대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과 노동자, 환경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 안에 돼지
/조슬린 포르셰, 크리스틴 트리봉도 지음/배영란 옮김/숲속여우비/7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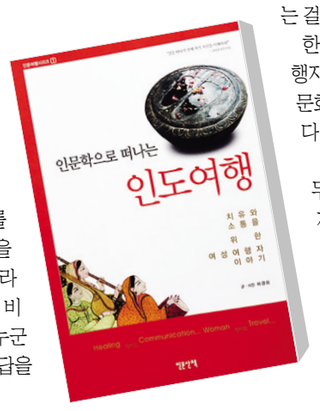
나를 비워 손 내밀게 하다

혜경희 '인문학으로 떠나는 인도여행' … 300컷에 달하는 생생한 사진

인도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인도는 5000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신비로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유구한 문명을 지닌 신비의 땅임에도 한국에서는 인도를 가난한 나라, 명상의 나라, 신화의 나라 등으로 단편적으로 인식돼 왔다.

인도 자와할랄 네루 대학에서 인도 역사를 전공한 저자는 인문학적 시각에서 인도를 바라봤다. 저자는 인도에서 맞닥뜨린 낯선 환경과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책을 연다. 그 과정 속에서 저자는 인도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현장을 통해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난다. 낯선 나라를 구석구석 누비면서 나와 다른 이들의 삶과 문화를 통해 결국 자신이 뿌리 내릴 땅이 어디인지를 찾는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답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굳이 언어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여행을 한 번이라도 떠나본 이들이라면 여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매력이 무엇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인도여행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우정을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읽는 이에게 "여행이란 나를 비우고, 자신을 들끓게 하는 혼란을 비우며,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라는 해답을 전한다.

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은 한 여성여행자가 자아를 찾기 위해 떠난 진부한 여행 스토리가 아니다. 자신의 내면의 성찰을 마친 저자는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인도는 힌두교와 카스트제도라는 독특한 종교와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600년간 이슬람의 지배와 200년간의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날 인도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인도이지만, 알고 보면 끊임없는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인도 고유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음을 이 책은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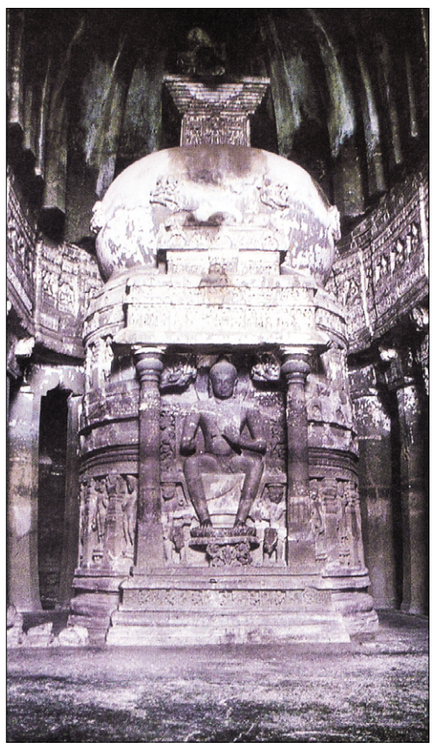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지금의 인도를 저자는 "문학이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고, 삶이 되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인도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고 있는 곳이라는 걸 자신의 여행담을 통해 진솔히 풀어낸다.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 여성여행자가 떠나는 여행의 기록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우리 내면의 성찰까지 이르게 한다.

책은 저자가 인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각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기록한 300컷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문학 철학 종교 예술의 시각에서 인문학적 글쓰기가 돋보인다.

인문학으로 떠나는 인도여행|혜경희 지음|인문산책 펴냄|1만5000원

이은정 기자



인도의 아잔타 동굴.

손오공과 함께 하는 신기한 구법여행

현대적 감각으로 재편한 3권의 '서유기' 선보여

삼장법사와 세 명의 제자들이 펼치는 모험담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는 <서유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수의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우리에겐 익숙한 이야기다.

1000년 넘게 오랫동안 대중적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이 환상적인 스토리는 <삼국연의> <금병매사화> <수호전>과 함께 중국 4대 기서(奇書)로 불리며 동양적 판타지의 정수를 보여준다.



<서유기> 전 3권.

<서유기>는 명나라 당시의 암울한 정치와 도교를 우회적으로 풍자하며, 낭만과 재치가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하게 꾸며졌다. 하지만 유쾌하고 재치 가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유기>는 여태껏 원서에 충실한 완역판으로만 출판돼, 소위 '전문가용'에 그쳐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번 새로 발간된 <서유기>는 총 3권으로 구성됐다. 100회에 달했던 '완역판' 중에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간추려 45회 분량으로 엮었다. 한시(漢詩)와 주석(註釋)이 많이 붙어 읽기 불편하고 어려웠던 책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젊은 독자층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책의 내용 중간 중간에 삽화를 삽입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래 <서유기>는 중국 당 태종 즉위 3년(서기 623년)에 현장 스님의 기행문인 <대당서역기>에 상상적인 내용과 기이한 에피소드들이 생기면서 <서유기>로 탄생하게 됐다.

이제껏 이런 <서유기>의 긴 분량과 어려운 해설에 주눅 들어 탐독하고 있지 못했던 독자라면, 새롭게 풀어 엮은 <서유기>를 통해 새로운 환상의 판타지 소설을 감상해 볼 수 있다.

서유기|오승은 지음 · 임홍빈 편역 · 김종민 그림|문학과지성사 펴냄|각 권1만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3	봄같이 여름같이 가을같이	무하	초롱
4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5	금강경 이야기	김동규	금강경독송회
6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금강	불광출판사
7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선원
8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9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10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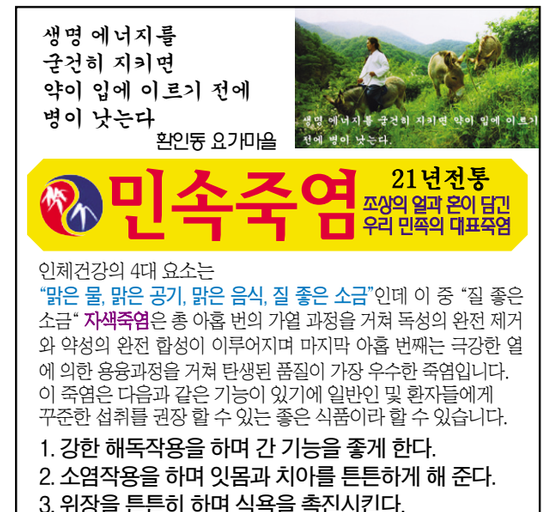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열반이라 해도 옳지 않고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다




그림 · 최문정

거화봉의 불이 연화단에 옮겨 붙자 흐느낌 터져
인간사가 한바탕 꿈인 듯 조용히 막을 내리다

2002년 1월 6일.

겨울바람이 울음을 멈추었다. 햇살이 영결식장인 구광루 마당에 쏟아졌다. 문상 온 스님들이 벙거지를 벗고 신도들은 두툼한 목도리를 풀었다. 일주문 밖에서 계속 밀려오는 추모객들의 마음이 모아져 강추위가 잠시 물러선 듯도 했다.

영결식을 알리는 대종 소리가 났다. 이미 일주문에서 구광루 마당까지 인산(人山)이 되고 인해(人海)가 돼버렸다. 단 한 사람도 구광루 쪽으로 비집고 들어서지 못했다. 추모행렬은 한 덩어리가 돼 있었다. 추모객들은 해인사를 떠나게 될 혜암의 법구를 보고자 발을 동동 굴렀다.

혜암의 법구(法軀)가 든 관을 짰던 김일출 목수는 영결식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해인사 사하촌 위쪽에 자리한 다비장으로 다시 향했다. 도감 종성의 지시를 받아 생화로 꾸민 영결식단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다비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다. 그러나 김 목수를 태운 트럭은 주차장까지 들어찬 인파를 뚫고 빠져나가는데 애를 먹었다.

이윽고 해인총림 방장 법전이 원로회의 의장 자격으로 추도사를 했다. 성철의 회상에서 혜암과 탁마했던 세월이 떠오른 듯 법전의 목소리는 감회에 젖어 있었다.

'줄기 없는 꽃봉오리, 시들지 않는 만다라화로 종정스님의 법구를 장엄하고, 메아리 없는 가야산하(伽倻山下) 그림자 없는 낙락장송의 일편향(一片香)을 영전에 올립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유유자적 오고감이 없고, 생사 없음을 보이신 종정 스님의 모습 앞에 저희들은 유구무언입니다. 열반이라 해도 옳지 않고, 열반이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출가한 이래로 장좌불와와 일종식(一種食)을 하면서 위법망구의 두타 고행정진으로 어떤 것이 수행자의 본분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가야산의 찬바람 되어 저희들을 경책하는 법음으로 와 닿습니다.

이제 종정 스님의 영정 앞에 영결식을 봉행하오니, 스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봉암사 결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그 기개를 이제는 어디에서 뵈올 수 있겠습니까.

종정 스님께서는 가는 해의 마지막 날에 육신을 허공에 놓으시니, 어제와 오늘이 따로 없고, 전생과 내생도 없는 마음을 주인 삼아 시간과 공간에 주인이 되라는 말없는 가르침에 온 사부대중은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환희심으로 가득합니다.

큰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하면서 슬픈 마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중생들을 위해서 베푸실 일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이렇게 홀연히 가시다니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집니다.

혜암 큰스님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불교계의 굳건한 거목이십니다. 1946년 출가하신 이래 평생을 고행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성철스님, 자운스님 등과 함께 한국불교의 중흥기를 이끄셨고, 원로회의 의장으로 종단 화합과 개혁을 통해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곳 해인총림의 제 6대 방장을 지내셨고, 조계종 제 10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우리 사부대중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대각이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설법으로 중생을 감동, 교화하신 우리의 큰 스승이십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황폐화된 우리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일궈주신 위대한 성현이십니다.

한도 끝도 없는 큰스님의 법력을 어찌 몇 마디의 필설로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존경심과 한없는 그리움으로 그 공덕을 여러분과 함께 기리고자 할 따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스님과는 잊지 못할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96년 이곳 해인사를 찾은 저에게 주신 지도자의 덕목에 관한 큰스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에는 길을 가시다가 문득 저를 찾아 '방생'의 참뜻을 화두로 던져주시면서, 인간방생을 실현하라고 하신 말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큰스님과의 이러한 인연은 국정운영을 하는데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불교에는 호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을 이뤄온 불교계입니다. 큰스님께서도 평소 나라를 걱정하며 국민대화합을 위해 발원하셨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자고 역설해 오셨습니다.(중략)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난한 이, 외로운 이 모두가 본래로 부처님이니 서로 공경하고 서로 아끼며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신년법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큰스님의 입적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애도 드리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부대중 여러분께 늘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수가 다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추모객들이 올라와 있었다. 오전부터 연화단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운구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추모객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사진기자들도 두꺼운 방한복 차림으로 섞여 있었다.

연화단은 마치 거대한 홍련 같았다. 약수암 비구니 스님들이 닷새 동안 8만 8천 장의 연꽃잎을 접어서 첩첩비봉산(疊疊飛鳳山)하고
여여미소굴(如如微笑窟)인데
선사귀하처(禪師歸何處)오.

비봉산은 첩첩하고
미소굴은 여여한데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할!'

김일출 목수가 탄 트럭은 의경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해인사 주차장을 벗어났다. 총무원장 정대의 영결사가 이어졌지만 그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다비단은 이미 이틀 전부터 10여 명의 일꾼들과 함께 장작과 숯과 볏짚 등으로 설치하였고, 그 위에 연화단이 올려 졌지만 그래도 최종 마무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추모행렬은 일주문 너머까지 들어차 끝이 보이지 않았다. 성철의 영결식 때도 목수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김 목수는 추모객 숫자를 어림셈할 수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추모객이 3만여 명은 돼 보였다. 구광루 마당을 가득 메운 스님들의 숫자를 3천여 명으로 본다면 일주문 안팎의 추모객들이 2만 7천 명 정도 된다는 어림셈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조사 순서 때는 영결식장 분위기가 더 숙연해졌다. 문화부장관이 대독하고 있지만 친필로 쓴 조사의 서두에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신도들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쳤다.

'존경하는 혜암 종정 큰스님!

만든 작품이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종정 혜암에게 '연꽃집' 한 채를 마련해 드린 셈이었다.

마침내 혜암의 법구가 이운되어 둥그런 다비장에 도착하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추모객들이 스님들에게 밀려났다. 고승들과 혜암의 문도들이 연화단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대중스님과 추모객들은 뒤쪽으로 물러섰다. 또한 오색 만장들은 산자락으로 올라갔다. 혜암의 법구가 연화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만장들이 몸부림치듯 나부꼈다.

한 스님이 요령을 흔들며 의식을 집전했다.

신원적 혜암당 성관 대종사 각령이시여.
색신은 비록 멸하더라도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의 몸은 침착하여 깊고 고요한 모양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크게 쉬는 땅이라 하고 욕과 식견이 참으로 머무를 자리입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 각령이시여.
성품은 본래 넓고 커서 수승한 허공과 같고 참다운 성품의 높이 뛰어난 모양은 법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 각령이시여.
만일 업장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먼저 마땅히 참회하십시오.
아래에 진언이 있으니 삼가 마땅히 생각을 밝히소서.
다냐타 옴 아리다리 사바하
다냐타 옴 아리다리 사바하.

거화봉의 불이 연화단에 옮겨 붙자,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보살과 거사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스님! 집에 불났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한 번 붙은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오후 2시에 거화된 불은 서너 시간 동안 불기둥이 되어 이글거렸다. 하늘로 치솟은 불길은 혜암의 법구를 한 점 남김없이 지수화풍으로 되돌리려는 듯 훨훨 타올랐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어느 새 추모객들은 산 아래로 물러가고 혜암의 문도만 남았다. 혜암의 상좌와 신도들은 달이 뜬 줄도 모르고 다비장에 남아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렀다. 다비식을 집전했던 스님이 다시 찾아와 요령을 잡고 아미타염불을 했다. 그런 뒤 어느 상좌가 〈금강경〉을 독송하자고 제의하자 모두가 따라했다.

그런데 〈금강경〉을 이심전심으로 세 번이나 독송하는 중에 한 노파가 젊은 보살의 부축을 받으며 다비장으로 왔다. 혜암을 30년 넘게 시봉한 103세의 광명화보살이었다. 보살은 합장한 채 불 붙은 연화단을 세 바퀴나 돌았다. 보살은 배웅인사를 하는 것으로써 금생의 시봉을 다하고 있었다. 부축하고 있는 젊은 보살이 울음을 터뜨리자 나무랐다.

"큰시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울 필요 없대이. 이제 다 던져버리고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실 텐데 슬플 것이 뭐꼬."

광명화보살은 다비장을 의연하게 물러갔다.

"이제 나도 본래 자리로 가신 큰시님 빈자리를 지키다가 갈 곳으로 갈끼다."

자정 무렵부터는 불길이 안으로 잡히더니 숯불로 변했고, 새벽 4시쯤에는 숯불마저 한 무더기의 허연 재로 식었다. 아미타불을 외는 창불(唱佛) 소리는 진즉 가야산 산자락에 잦아든 뒤였다. 인간사가 한바탕 꿈인 듯 조용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풍경은 또 돌변했다. 혜암의 법구가 지수화풍으로 완전히 돌아갔음을 알리는 것처럼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그러나 진눈깨비는 날이 밝아지면서 목화송이 같은 눈송이로 바뀌었다. 법전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혜암 상좌들이 습골할 무렵에는 함박눈으로 바뀌어 난분분 난분분 내렸다.

스님의 사리는 황금빛과 옥빛, 흑진주빛 등 모두 86과(顆)가 수습됐다. 상좌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혜암당 성관 대종사의 영롱한 모습이었다. 〈끝〉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❼ 오리궁뎅이

잘못된 생활습관이 빚은 자세

오리궁뎅이는 엉덩이를 뒤로 쑥 내밀어 오리처럼 보이는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앞 · 뒤 모습은 날씬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허리가 안으로 쑥 들어간 느낌을 주며 엉덩이만 유난히 튀어나와 보여 미용 상으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바지나 치마를 입었을 때, 유독 불룩하게 튀어나온 엉덩이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쉬운 말로 오리궁뎅이라고 하는 체형 불균형 증상은, 골반의 후만 증상, 즉 골반이 뒤로 틀어지면서 튀어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허리가 앞으로 휘어지면서,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증상을 동시에 유발시키기 마련입니다. 불균형한 골반과 허리로 인해 자세는 구부정하게 변형됩니다.

따라서 자세 불균형 · 아랫배 돌출 · 걸음걸이 불균형 · 까치발 · 하체 비만이라는 복합 증상으로, 원치 않는 고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오리궁뎅이는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방치한다면 요추 4, 5번 디스크와 골반 뼈의 과중한 체중 하중으로 심한 허리 통증과 허리디스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전만(過前彎) 된 요추와, 과후만 된 골반으로 인해 '요추분리증' 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특히 요추 5번의 분리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발되는 심각한 척추 질환입니다.

다시 말해, 오리궁뎅이는 타고난 체형이기도 하지만 방치할 경우 더 심해져 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허리에 심각한 무리를 주는 상태이거나 골반의 전방 경사가 과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용 상의 측면을 부각해 외과적 치료를 고려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후천적 불균형으로 인한 초기 증상은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꼬리뼈가 닿아서 아프며, 목이 앞으로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리궁뎅이 원인은 대부분 유전적인 체형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하이힐을 자주 신거나 W자로 앉는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고 골반 도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발병하게 됩니다. 더불어 최근 컴퓨터 생활로 오랜 시간 동안 허리를 내밀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자세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오리궁뎅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오리궁뎅이 형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적고, 엉덩이 라인이 감소하며, 엉덩이를 볼륨 있게 보이게 하고, 대퇴부를 시각적으로 길게 보이게 함으로써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생을 오리궁뎅이로 놀림을 받았던 환자가 기억납니다. 학창시절부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성격도 내성적이고 자세도 많이 망가진 친구였습니다.

선천적인 오리궁뎅이로 고민한 이 환자는 후만된 골반과 전만된 요추(허리)를 교정하고, 튀어나온 골반의 관절을 반듯하게 교정하기 위한 '워킹 트랙션 골반 견인 요법' 과 비틀어진 방향에 맞추어 처방한 맞춤 골반 교정 운동을 9달간 실행했습니다. 교정 전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정 후 바르고 균형 잡힌 허리 · 골반에 비교할 수 없는 호전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평생의 마음고생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요즘 앉아만 있어도 엉덩이가 맞아 들어간다는 의료 보조기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태가 일괄적일 수 없고 골반의 구조도 간단하지 않은데, 이러한 기구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의문을 던져 봅니다. 변형된 체형은 오랫동안 버려진 것이므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꾸준한 노력과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요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nP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1. 양다리를 90도로 접은 상태로 눕는다. 2. 골반을 들어 올려 몸과 허벅지와 일직선이 될 정도로 올린다. 3.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❼

뭐든 치우치면 기울어지기 마련

인도 불교가 중국화 되어가는 과정을 알아보는데 있어 중국의 천자(天子)사상과 유교(儒敎)를 밝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불교가 어떻게 고유성을 버리고 중국의 문화와 접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자사상은 신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신(神)들 가운데서 최고의 신인 '하늘신의 아들(天子)'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상입니다. 고대 중국전설에 황제라는 주권자가 바로 하늘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하늘의 아들인 천자는 세계 오직 한사람으로 천하만민을 통치합니다. 천자는 하늘에서 위탁받은 숭고한 임부를 수행하기 위해 현인의 도움을 빌려 민중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 하게 했습니다.

맹자는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존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라며 천자국에 맹종하면 존하고, 역천하면 오직 패망뿐이라는 무서운 결말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각각의 왕들은 이웃나라보다 힘이 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인도의 카스트와 비교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스트에서 '바라문' 은 크샤트리아 계급인 왕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왕이 큰스님들이나 바라문 수장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역사적 문헌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중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자사상으로 인한 왕의 절대적인 지위는 성직자라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불교가 전래 될 때, 기본적으로 지위가 바뀌지 않고는 불교가



진 시황제

전래될 수도 생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하관계가 바뀌다 보니 중국의 불교는 그 고유(인도불교)의 색채를 잃어버린 채 황궁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황제는 현인들의 보필을 받아 정치를 하는 것이 기본 사상이기에 당시 도교 · 유교 사상을 이용하여 그 힘을 국민의 정신을 단련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도 천자가 인정하는 도교와 유교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유교사상은 보통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측은(惻隱) · 수오(羞惡) · 사양(辭讓) · 시비(是非 : 선악의 판단)의 4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인 · 의 · 예 · 지라고 하는 덕(德)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게 된다면, 다들 겁이 나고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그 아이의 부모를 잘 알고 있어서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러는 것도 아니다. 측은해 하는 마음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지키려 했던 민족들인데, 후대에 와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시 유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것은 나라를 망치고 후퇴하게 된 것은 바로 '유교 때문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 입니다.

뭐든지 치우치면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사상이었지만 너무나도 집착하였기에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엄청난 제사의식과 의례로 정작 발전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내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불교는 유교사상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에, 기존의 제사와 의식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요령을 흔들며 제사를 지냈다는 소리를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근본경전에 보면 제사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도움을 주신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식에 집착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교가 옛것에 과도하게 집착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남겼듯, 지금의 불교 역시 진정 해야 할 수행보다는, 의식에 더 집착하니 이 역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❼

성장 호르몬이 활발해지려면

키성장

인체에는 206개의 뼈가 있다. 뼈는 남자 20살, 여자 18살까지 완성 된다. 뼈가 성장하면서 키도 크게 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키가 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키 성장 괄사' 는 외형적으로 효과를 볼 수있는 방법이다.

뼈가 성장하도록 돕는 데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산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시상하부의 성장호르몬 방출 호르몬과 분비억제 호르몬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뼈의 끝 부분이 쑥쑥 자라게 되면 키가 큰다.

뼈가 자라려면 뼈 조직이 튼튼해야 하는데 뼈 조직이 튼튼하려면 칼슘과 인의 무기질 대사가 강화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비타민D를 만드는 호르몬 생성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이는 신장에서 비타민D 생성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간뇌의 사상하부와 함께 비타민D 생성호르몬을 분비 하는 신장기능강화 괄사시술을 하면 「키 크기」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D 생성을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또 햇빛은 우리 피부를 통과할 때 피부에 있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화학물질을 비타민D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햇빛을 쐬는 적당한 야외활동은 뼈의 건강을 돕는다.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은 학업 문제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잠을 깊이 자야 한다. 또, 음식을 골고루 먹고 적당한 운동과 괄사기법 실시로 목표 달성을 하면 좋을 것이다.

⑴괄사법

<전신 괄사>

주 3회 120분 실시한다.

<부분 괄사>

1. 머리의 양쪽 관자놀이위의 머리 부위 튕기기를 실시한다.
2. 귀 뒤쪽 머리와 양 옆 머리 튕기기, 긁기
3. 귀속을 보라매소로 가볍게 돌려서 자극주기
4. 허리 부위 긁기 괄사
5. 양 서혜부(아랫배와 허벅다리 사이) 바깥쪽 끝부분 긁기와 튕기기
6. 팔목과 손등 밀기, 긁기, 튕기기
7. 발목과 발등 부위 밀기, 긁기, 튕기기
8. 얼굴은 매일 15분씩 괄사한다.

⑵괄사판

1. 학여울, 2. 달오름, 3. 미모사, 4. 보라매소, 5. 보라매대, 6. 보라매특대

⑶유의 사항

1.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비만을 일으키기 쉽다.
2. 키 성장을 위한 과다 운동은 체력손실과 체형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02)557-1628 ~9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괄사기법.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특별지도
1. 실천2주, 특수속성반
2. 귀신뽑는 비법
3. 내화역수, 내정법, 고급 포태법
4. 특수비법 역학, 택일, 성명학, 궁합
5. 신내림, 신병, 상담한영
010-2484-5001 스님에 한해
031)943-8094 특별 할인혜택
출장지도 가능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 행 정 사
010-6569-1010

역학 속성지도 30년
자격, 교수 법납
역학 10년이상 기타
인연보살, 종단 최고어른
20~30억
재력가능 회수 확실
02)907-5858
010-2693-7712

공양주 모십니다
010-7139-8631
010-9127-6331

기도스님 모십니다
▷세수 40세 이하 비구스님,
경북 칠곡
054)976-8116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9469-6625

염불 역학
조용한 산사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스님, 예비스님,
법사, 사찰운영자
염불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 (숙식제공)
011-716-3811

수행기도 · 영험도량
잠시, 한,두달 쉬실 분
지장경 대학 공부 장수
참나 깨치실 분 천도
1,3주 금,토,일 실참지도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부천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산
051)334-3009
011-840-4355

공양주 보살님, 행자(女) 모십니다
011-368-3882
052)264-5471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
010-3088-3133

단 1회 시술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 경락마사지, 지압요법 등이 아님.

전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2009년 12월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된 특별 수기공요법 (전 세계 20개국 특허 출원중임)

20여년의 많은 임상중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약간명만 면담 후 1:1 특별 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발 ◇

개인별 맞춤 전수 (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 전수금 : 오백만원
-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 특별 수제자 특전 :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 등 종교인 환영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8호 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50세 이하, 부산
011-551-1719

구례 약사기도도량 약천사
더불어 함께 운영하실
비구니스님(40대)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61)781-6328
017-621-6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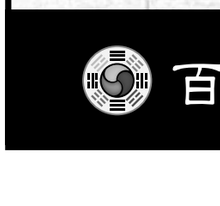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퀀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50대 후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소임이나 작은 암자 맡겨 주시면 청정도량으로 가꾸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처를 기다립니다.
010-5346-6742

달마 그리실 스님 모십니다
숙식 가능하신 분
월 유동인구 약 10만명
▷대구 팔공산
053)851-1080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근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감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비법전수중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위치 : 논산	●위치 : 제주
●법당 : 40평	●법당 : 20평	●법당 : 30평
●요사 : 120평	●요사 : 34평	●요사 : 40평
●부지 : 62평	●부지 : 240평	●부지 : 500평
●가액 : 17억(역세권)	●가액 : 1억 8천	●가액 : 1억7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위치 : 서울	●위치 : 인천바닷가	●위치 : 서울산사
●부지 : 4000평	●부지 : 700평	●부지 : 300평
●법당 : 40평	●법당 : 20평	●법당 : 20평
●요사 : 60평	●요사 : 100평	●요사 : 30평
●가액 : 15억	●가액 : 11억	●가액 : 6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알선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및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 근교 30분 거리
- 총평수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530평+밭 550평+임야
- 법당 15평,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 (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양도가 : 4억원

부산 바닷가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 평수: 3층, 4층, 5층(135평)
- 3층: 방 4개(처소, 친여실, 종부소, 부전실 外)
- 4층: 공양실 및 큰방 3개
- 5층 : 대법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 도심 포교당 최적지, 좋은 조건임

010-2599-6020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 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위치 최상)
- 평수: 약 400평
- 요사채 방 4칸 , 창고1
  대웅전, 산신, 용왕, 칠성
- 주차시설양호
- 가액: 평당 93만원(가격절충)
- 주지스님 건강 상 양도

010-2954-1288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법당 30평
- 전체평수 대지 500평
- 요사채 2동
- 가액: 2억 8천만원
- 주차장 확보

010-9798-1091
영주불사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지하철 1분거리
- 3층, 총 32평 ● 방1, 공양간 1,법당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재래시장 버스 종점,
- 위치는 최상급. 몸만 오실분

010-2204-83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막리동
- 평수 :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 원목단, 동불, 삼존불, 공양간, 방2, 시설완벽,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9-9382-05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대지 : 8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채, 방4개
- 현재 임도,삼림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공사중. 약수있음.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및 팬션 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순흥면
- 약1천여평. 건축허가 유
- 토목공사. 수도전기 완료.
- 소수선원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697-2290

포 교 원 안 내

- 서울 청량리역 부근
- 요사채1동(방2, 거실, 욕실, 부엌) 법당(30평), 다락방, 주지실, 부엌, 마당(30평)
- 삼존불, 지장단, 1자원불 500불
- 보증금: 1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5500만원 ●교통 편리

010-5040-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요사채25평,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사 찰 안 내

- 위치: 안성시 고삼 저수지 옆
- 한옥건물
- 땅 192평
- 사찰이나 전원주택으로 양도함
- 현재 사찰 운영중

010-2248-259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 3동
- 반지하 포함 4층건물 전체
- 주차시설 좋음
- 큰법당 35평, 지장전 30평, 공양간 및 방 35평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2억 3천만원(대출 5천 포함)

010-9665-0209
010-3848-16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140평
- 가액: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5층 건물증 3층
- 평수 45평
- 내부시설 완벽
- 보증금 1,1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569-1010

단독주택절집안내

- 위치 : 서울 쌍문1동
- 평수 2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양도도 가능합니다

02)993-18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총 50평
- 3층건물 중 2층 전체
- 방2, 주방, 욕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055)328-2509
019-549-3521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 도로, 계곡, 전기 접한 암자, 전원주택, 펜션 등 다용도 가능한 부지 1,600평
- 토목공사 완료
- 가액: 1억 2천만원

011-570-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6천만원
  대출 5천만원 가능함

011-540-3313
010-2093-23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방역 2번출구
-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약 50평
- 삼존불 (동불)
- 가액: 8천만원 중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6천만원 월 245만원
  부가세 별도

02)522-4984
010-5851-49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시내중심지
- 대지: 85평 내 단독 슬라브주택
- 법당, 주방, 거실, 방, 샤워실, 다용도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시설집기물 일체 1,200만원
- 몸만 오면 모든 법회 즉시 가능
- 현재 활발 운영, 법회중

011-458-29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역 앞
- 주차장 완비
- 평수 80평
- 법당, 방3, 스님 별도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병안 문제로 급 양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1-685-6740

포교원(상담소)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중심가
  (재래시장입구, 상가 3층)
- 상담실, 침실, 샤워시설
- 가액: 600만원
  (보증금+시설비)

010-3011-0853
031)633-03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안강5리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2천만원

016-9290-4656
031)347-465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45평, 법당 30평
- 요사채 방 6개, 지하창고 6평
- 전망 좋으며 바다가 보이는 기도도량
- 주차시설 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0-3852-8252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버스정류장)
- 4층건물에 3층
  법당, 상담실, 화장실
- 4층 요사방, 부엌,
  전체 약 2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
- 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양도

011-544-97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부림면
- 대지 : 1,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만원 가능)

010-3011-0853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751번지
- 대지 250평, 법당, 45평
- 요사채: 20평
- 이층(산신각)
- 가액: 4억 (현 시세 평당 200만원)
- 상담 후 조절 가능
- 전원주택별장으로 사용가능

010-9100-1326

현대식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면 국도변위치(교통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10평, 주창장 넓고 정원수 많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양옥 65평 1동 (최고급 실내 원목 사용,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 법당: 20평 1동(현대식법당 법사님 보살님 적합)
- 가액: 2억 4천만원(은행융장 7000만원 포함)
- 가액절충 전세도 가능

010-7488-79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

011-9888-156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2억

017-572-3714
011-419-3714
051)556-9530 (아란)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9평, 주지실 별도
-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 조경 되어있고, 법당 시설 완벽,대형버스 주차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은행융자 5천만원 가능), 전세도 가능합니다

010-4193-3366

포교원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천안역전 앞
- 평수 50평, 현재 법회중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상담실 및 실방, 목욕탕,거실, 방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041)567-039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50만원
- 전월세 가능, 전세 1억원
- 23년째 운영중

010-2785-9522

‘노는 사회’ 만드는 편안한 종교 돼야



김형효 교수가 대한불교진흥원 대법당에서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강 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효 명예교수
일 시 : 2010년 2월 5일
주 제 : 세상을 위한 불교
장 소 : 대한불교진흥원 대법당
주 최 : (재)대한불교진흥원

하루에 나를 스쳐가는 사람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에 이른다. 사람들은 생김새부터 옷차림까지 어디 하나 같은 구석이 없다. 세상은 이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진 곳이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터인데,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인지 아직은 명확치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효 교수는 이러한 기준을 불교의 ‘공심(空心)’으로 바라보라고 제안한다. ‘공심’으로 세상을 즐기며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여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즐겁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같은 마음이다. 김형효 교수는 ‘세상을 위한 불교’ 강좌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불교적 사유로 세상을 바라봐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말한다.

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부작용 생겨
무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말해야

#22세기는 불교가 주역

이번 강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대주제는 ‘세상을 위한 불교’입니다. 오늘날 불교가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불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지식인들이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불교는 어딘가 뒤쳐지고, 도태되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시대가 아닌 불교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불교는 현재 가장 앞선 사상을 가진 종교입니다.

현재 미국 최고 지식인들은 점차 불교사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변하면 자연스레 한국도 변하게 됩니다. 세계는 이제 점차 불교로 눈을 돌리며, 바뀌어져 갑니다.

이럴 때 불교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22세기에 불교가 가장 빛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불사선 불사악

세상을 위한 사상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문명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윤리 문화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에서 발달된 것이고, 도덕윤리 문화는 동양의 유교문화에서 강조돼 온 것입니다. 근대화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중요시되면서 기독교의 세력도 점차 강화됐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에는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배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도덕윤리 문화는 유교문화에서 발달된 것입니다. 조선조 500년의 유교사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스님이 8대 천민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불교가 억압 받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와 유교는 항상 선(善)만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도 항상 악과 투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악과 투쟁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조혜능 선사는 ‘불사선 불사악(不思善 不思惡)’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깊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화두를 들고 살아야 합니다.

#편리주의, 도덕주의 벗어나야

과학기술의 편리, 도덕윤리의 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기술은 유의적인 성격이며, 도덕윤리는 당위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리주의는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가 편리주의로 바뀌면서 우리는 문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편리주의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편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편리하지 않은 것은 점차 뒤로 밀려나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들이 모두 그렇게 변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모두 편리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당위주의는 도덕, 윤리만을 강조합니다. 도덕과 도덕주의는 다릅니다. 도덕주의는 도덕을 최고의 가치 있는 규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류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엄청난 도덕주의로 남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회를 하는 것은 털어서 먼지가 나기 때문에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옹고집이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병폐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은 자연스레 또 다른 사람들을 탈선 하게끔 만듭니다. 도덕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탈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자, 본능입니다.

선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항상 싸움을 하는 것도 자신들의 선이 맞고, 상대방의 선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모든 것을 윤리 도덕으로 무장하면 정말 무섭고 겁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불교가 보편적 사상

그럼 어떤 것이 보편적인 사상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교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空心 · 虛心)만 있을 뿐이죠. 불교가 말하는 이런 공과 허가 바로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과 허를 생활의 진리로서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과 부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은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정견뿐 아니라 사견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불교의 특징입니다. 사회는 아무리 정화하려고 해도 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도덕만으로는 절대 사회가 구원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게르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고, 스탈린은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위해 30만 명의 지식인을 처형했습니다.

불교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의적인 사고방식도 아니며, 당위적인 도덕윤리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불교는 무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말해야 합니다. 무의라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유로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적인 사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자연스레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가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미가 왜 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양에서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장미는 장미가 피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미가 왜 피는가에 대해서 기독교는 신을 위해 핀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단지 피고 싶어서 핀 것 뿐입니다. 이제 불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허 · 공심으로 세상을 여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많은 질병에 걸립니다. 이것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는 ‘노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재밌게 놀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세상입니다. 악인도 놀이에 빠지면 이미 악인이 아닙니다. 선인도 놀이에 빠지면 선인이 아닙니다. 그냥 즐거울 뿐입니다. 불국토는 5000만을 불보살로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놀이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마음씨가 안 좋은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술만이 앞으로 우리사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나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술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는 아름다움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불교는 지금 이고득락의 길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0@hanmail.net



2월 5일 김형효 교수의 ‘세상을 위한 불교’ 강좌를 경청하는 사부대중들.

사찰대출안내

사찰대출 전문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 입니다.

사찰은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 기관으로 지역 사회 개발과 회원 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 이라 부처님의 중생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 기관이라 자부합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 하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출장비,수수료,꺽기등이 일체없습니다~
☞ 하루만에 갚아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형산(구.죽도2동)새마을금고 본점

대출지역 : 전국
대출형식 : 담보대출
대출금액 : 3천만 이상
대출금리 : 연7.2%~7.6%
대출기간 : 3,5년(연장가능)

☞ 담당직통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의 새이름-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다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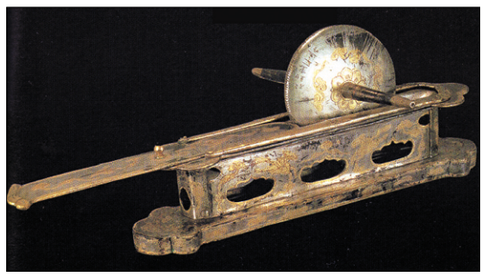
② 다연자



차는 황실 · 사찰의 중요한 물품

중국 산시성 성도(省都) 시안(西安)은 황하 중류에 위치한 오래된 도시이다. 진 · 한 · 수 · 당(秦漢隋唐) 등의 도읍지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 가운데 시안시로부터 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부풍현(扶風縣)에 위치한 법문사(法門寺)는 석가모니의 손가락뼈인 진신지골사리(眞身指骨舍利)가 모셔진 사찰로 유명하다.

법문사에 진신사리를 모시게 된 연유는 이러하다. 석가모니 사후인 기원전 253년, 제3차 결집 결의에서 사부대중은 부처님 진신사리 8만4000과를 나눴다. 대중은 나뉜 사리와 경전을 들고 각각 포교에 나서기로 했다. 18명의 사문들은 불지사리를 포함한 진신사리 19과를 갖고 중국으로 왔으나, 포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법문사 터에 사리를 묻었다고 전해진다.



유금홍안유운문은다연자(鎏金鴻雁流雲紋銀茶碾子). 법문사 박물관.

후한 때(148년) 서역 고승 안세고가 이 진신사리를 발굴함에 따라 환제(桓帝)가 진신사리의 발굴지에 불탑, 사찰과 지하궁전을 짓고 불지사리를 안치했다.

이후 법문사를 덮친 수차례의 천재지변과 전쟁 등은 사리의 행방을 묘연케 했다. 몇 차례 발굴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고, 불사리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1981년 내린 폭우로 무너진 보탑을 재건하던 중, 1987년에 지하궁전 후실의 비밀 감실(龕室)이 발굴됐다. 감실 입구에서 발견된 '진신지문비(眞身誌文碑)'와 '헌의물장비(獻衣物帳碑)'를 통해 이곳에 진신사리가 안치됐다는 사실과 당대의 황실에서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물들의 규모가 밝혀졌다. 이때 발굴된 3000여 점의 유물은 고고학적인 발굴의 쾌거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발굴품 속에 포함된 당 황실용 다구 일습은 9세기 당 황실의 화려한 차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단서가 됐다.

당시 발굴된 차 관련 유물로는 다조자(茶槽子), 다연자(茶碾子), 다라자(茶羅子), 시자(匙子), 유리발자(琉璃鉢子), 유리다완(琉璃茶碗), 다탁(茶托) 한조, 장병은작(長柄銀勺), 은칙(銀則), 능호형은방합(菱弧形銀方盒), 반원좌은염대(盤圓座銀鹽臺) 등이 있다. 특히 다라자와 다연자에는 '함통(咸通)'과 '오가(五哥)'라는 명문이 새겨져 눈길을 끈다. 함통(860~873)은 당 의종(懿宗)의 연호이며, 오가는 희종(僖宗)의 아명으로 이 다구의 조성 시기를 밝히는 단서가 됐다. 더구나 다연자는 당대의 제다법과 탕법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법문사에서 발굴된 다연자의 공식 명칭은 '유금홍안운문은다연자(鎏金鴻雁流雲紋銀茶碾子)'로 판금기법으로 제작돼 금도금 처리돼 있다. 전체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높이 7.1cm, 가로 27.4cm, 깊이 3.4cm, 가로막 길이 20.7cm, 너비 3cm, 무게 1168g으로 바닥에 '함통 10년 문사원(文思院)에서 은금화다연자(銀金花茶碾子) 하나를 제작했다. 전체 무게는 29냥이다. 장신(匠臣) 소원심(邵元審), 이사존(李師存), 판관고품신(判官高品臣) 오홍각(吳弘慤), 사신(使臣) 능원(能順)'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문사원은 황제의 일용품을 제작하는 관청이다. 명문은 다연자 등 다구가 문사원에서 주조됐음을 알려준다. 다연자는 꽃무늬가 새겨진 은제 과축(鍋軸: 손으로 잡는 부분)과 원병(圓餠: 바퀴처럼 둥근 부분)으로 이뤄졌다. 다연자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톱니모양의 띠가 둘러져 있다. 둥근 바퀴 가운데로 과축을 끼어 사용하며, 둥근 부분의 평평한 부분에 '오가(五哥)'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 둥근 부분을 따라 '과축중십삼량십칠자호(鍋軸重十三兩十七字號)'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과축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축을 꿰는 둥근 부분의 지름은 8.9cm, 축의 길이 21.6cm, 무게 527.5g이다.

당대는 단차를 만들어 음용했던 시기이다. 단차는 떡차의 일종으로 찻잎을 시루에 쪄서 절구로 찧은 다음 틀에 넣어 차의 형태를 만든다. 이것을 마시는 방법은 먼저 불에 차를 구워서 다연자에 갈아 체에 거른다. 이렇게 만든 가루차를 소금과 함께 넣어 끓여 마셨다. 다연자는 차를 가는 도구로 단차를 즐겼던 당대에 중요한 다구 중의 하나였다.

진신사리가 보관됐던 법문사에서 황실용 다구를 공양한 것은 이미 차가 황실과 사찰에서 일상의 중요한 물품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차가 부처님 공양물이었던 것을 비롯해 국가적인 행사에서 중요하게 사용됐음을 가늠케 한다.

법문사에서 출토된 다구 일습은 바로 이러한 당대의 차문화의 유형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㉘ 백련사 동백



이른 봄에 동백꽃을 보러 강진 백련사를 찾은 적이 있었다. 겨우내 불어댔을 바닷바람은 멀리 강진만으로 돌아간 듯했고, 도량엔 봄바람이 새살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숲에 들어서자 검푸른 나뭇잎 사이로 붉은 동백이 보였고, 오솔길엔 먼저 핀 꽃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걸을수록 숲은 깊어졌고, 숲이 깊어질수록 숲 밖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숲처럼 깊어갔다. 사람들은 그 '깊어진 것들'을 만나기 위해 숲을 걷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숲을 나설 때 쯤 부도 하나를 만났다. 겨우내 목탁소리 와서 맺히고, 겨우내 드나든 사연들 맺혀서 틔운 백련사 동백꽃은 다시 돌이 되어가고 있는 부도 앞에 쓰러져 붉은 흙이 되어가고 있었다.

옛 판화의 세계

스님이 되어 부모의 은혜를 갚다 (爲僧報父)

당나라 때 석사비라는 스님이 있었다. 석사비 스님이 어린 시절, 어부였던 아버지와 밤에 낚시를 하러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스님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석사비 스님은 그때의 충격으로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출가했다. 스님은 은사인 설봉 스님에게 의탁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 삽화 속 그림은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자 어느 날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 "내가 찾아온 것은, 아들이 출가해 심지를 환히 밝혀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게 된 까닭을 알릴 따름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판각한 것이다.

사비(師備, 835~908) 스님은 중국 당(唐)대의 승려로 수행 초기부터 의식을 절제하며 극단적인 고행을 했다. 스승인 설봉 의존(雪峰義存)은 스님을 '비두타(備頭陀)'라 부르며 지도했다. 사비 스님은 설봉을 따라 상골산에 들어가 수행 정진하던 중 <능엄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됐다. 민왕 왕심지(王審知)의 도움으로 석두(石頭) 희천의 종지(宗旨)를 중흥시켰던 스님은 후량(後梁) 태조 개평(開平) 2년에 나이 74세 법랍 45세로 입적했다. 사비 스님의 13명의 제자 중 나한원(羅漢院) 계침(桂琛)선사가 유명하다. 스님의 어록집으로는 <현사사비선사어록(玄沙師備禪師語錄)> 등이 있다.

어느 날 사비 스님은 여러 지방을 순력하다 험준한 곳에 이르게 됐다. 결국 스님은 바위에 다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됐다.

"이 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아픈 감각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몸은 괴로운 것이며, 마지막에는 무생이다. 그만두자! 그만둬! 달마는 동쪽 땅에서 오지 않았고, 2조 혜가는 서천에 가지 않았다."

이때부터 스님은 다시 영남으로 돌아가서 설봉 스님과 함께 선원을 개설하니 현도(玄道)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었다. 설봉 스님과 서로 문답하는 경우에도 역시 제자리를 차지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를 두고 설봉 스님은 "비두타는 부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사비 스님의 철저한 수행기풍을 엿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스님이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까지 제도했음을 엿볼 수 있다. 사비 스님의 일화는 영가 천도도 치열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한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위승보부(爲僧報父).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운주사 www.unjusa.com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 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욕망이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반대로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할까? 욕망은 삶의 주체인 인간이 그 욕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혹은 억압과 발산의 조절능력에 따라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정준영, 한자경 외 | 신국판양장 | 400쪽 | 값 18,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 ·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인간 내면의 문제에 가장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불교에서의 관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하고 있다.

권석만, 김진무 외 | 신국판양장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형체가 없어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는, 분명 존재하지만 도대체가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마음의 존재와 작용 방식에 대해, 가장 오래된 연구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와 제반 인접 학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 마음 연구를 위한 총체적 편람 역할을 한다.

미산, 윤원철 외 | 신국판양장 | 396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몸의 작용,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초기불교, 선불교, 동양철학, 서양철학, 의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의 문제는 인류 지성 앞에 던져진 가장 근원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몸은 마음(영혼, 정신)의 부속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니면 서로 동등한 입장의 동업자인가? 이 책은 '몸'의 역할과 정체를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성찰하고 있다.

우희종, 성태용 외 | 신국판양장 | 424쪽 | 20,000원

buddhanews.com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 주인공 속에서 해결하세요

☞25면에서 계속

간지옥이라고 땅속에서요, 지금 그 국내 밥내도 못 맡고 사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허다하게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옥이 따로 있어서 지금 교도소에서 정치범은 정치범대로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대로 따로 가두어 놓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이 돌아가시거나 사람이 죽으면, 쌀을 그냥 고스란히 해 놓기도 하고, 재를 그냥 아주 곱게 쳐서 이렇게 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문으로 나가는 데다 이렇게 해 놓고선 그거를 보죠. 보면은 꼭 발자국이 그렇게 있거든요. 뱀이 된 거는 기다랗게 늘어져 있고, 사람이 된 거는 사람 발자국이 돼 있고, 또 닭이 된 거는 닭 발자국이 돼 있고 그렇게, 곱다란 재 위에 그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돼 보세요. 허, 몇천 번을 자기가 죽어요, 몇천 번 그냥 그냥! 뜨거운 물에 삶겨서 그냥 몇천 번 죽어요. 허허허….

그러니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려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죠. 하하하…, 또 독사 소굴에 들어가려느냐 이런 소리는, 독사 소굴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독사가 사는 데에 그 영이 들어가면 독사로다가 화해서 모습이 돼 나오는데, 그러면 독사인 거지 뭐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독사 소굴에, 그 깊고 깊은 독사 지옥에 들어가려느냐, 화탕지옥에 들어가려느냐, 그냥 뭐 별소리가 다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어디 지옥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승에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중세계도 있고 하세계도 있고 상세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권리를 찾아야지요, 본래 있는 거니까. 우리들이 본래 권리를 99%를 받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인간으로 나왔으니까요. 전자에 깨친 부처님도 사람이지 뭐,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면 부처 될 수가 없죠.

질문자2(남): 그러면 그 상천세계 같은 데서 불도를 지금 닦고 있습니까? 상천세계에서?

큰스님: 아, 지금들 모두 닦고 있지 않아요?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고 저희들이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인공이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돌려 놓고 또 맡기고 이렇게….

큰스님: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주인공이 (질문자를 가리키시면서)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이럭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일거일동하고 돌아가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수레라고 했습니다. 수레! 수레바퀴와 같이 돌아간다. 그런데 그 수레를 누가 굴리느냐? 바로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수레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를 돌아가게 하는 그 불성 자체 기둥을 믿어야지 어딜 믿느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봉이 바로 너의 주인이지 어디 따로 있느냐? 이런 겁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돌아가는 게 또 있으니까 '공'이랬습니다. '주인공!' 하하하…. 그래,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랬지요. 그 가운데에 바로 부처는 있느니라 이런 겁니다.

질문자2(남): 저희가 믿고 맡기고 가면서도 어떤 때는 다시 또 의심이 나서 다시 또 맡겨야 되고 그러는 것은 전에 살던 습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거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본래 뿌리만 안다면 모든 싹, 이파리를 다 거기 놓기 때문에, 그냥 병도 붙을 데가 없고 또 번뇌 망상도 일어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번뇌 망상이나 그런 것도 다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 속에다 되놓으면 됩니다. 되놓기만 하면 그 망상이니 뭐니…,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질문자2(남): 네. 습성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큰스님: 습? 습도 이 지금 입력이 돼 있거든요, 과거에 살던 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대로 자꾸 나오고, 또 이 바깥에서 자꾸 습이 들어가죠. 그래, 그 습을 떼는 게 아니라 '녹여라'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컴퓨터 얘기를 하고 그 입력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무조건 입력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습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그것이 나오는데,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 입력된 거를 듣느라고 버튼 누르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죠, 그게. 감겼던 게 나오죠. 나오는 거를 즉시즉시 거기다가 다시 놓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앞서 입력된 거를 없애려면, 이열치열이라고 하듯이 거기다가 되놔야 된다. 즉 몸뚱이 속에, 얼른 쉽게 말해서 생명들이, 의식들이 몽땅 들어 있어서 의식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나오는데, 그것이 업보니까 말입니다. 그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거기다 입력을 해보세요, 그 속에다가. 그래서 '한마음 속에서,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 주인공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되놔라 이겁니다. 주인공이면 몽땅 다예요. 지금 자기가 움죽거리고 말하고 하는 것까지도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고 후일도 그렇고, 세세생생에 우리가 한 자리를 하게 될는지 말입니다. 하여튼 그때는 옛날 얘기 하겠지요. 하하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야,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었지.' 하고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당해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허! 당신네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죽으면 한 번쯤은 나를 거치지 않고는 못 간다." 하하하….

질문자3(남): 좀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큰스님을 가까이 뵙고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개인적인 것이 따로 없고요, 공적인 것이 따로 없어요.

질문자3(남): 이 법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제 그릇에 맞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면, 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씀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죠? 주인공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거지 댁의 껍데기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아닌 그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죠.

질문자3(남): 예.

큰스님: 그럭하면 돼요. 허허허…. (대중 웃음)

질문자3(남): 고맙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죠. '요거는 요렇게 해 갔는데, 이만치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자꾸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따라서 여러분이 더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나왔는데도 더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밑바닥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죠.

질문자3(남): 제가 실은 여기 나온 것은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공부를 잘해 가고 있는지, 스님한테 점검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잘못해 가고 있으면 스님께 죽비를 좀 맞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이미 죽비는 맞았는데요, 뭐. 하하하…. 그래도 죽비를 맞았으니까, 누가 때렸느냐? 자기가 자기를 때린 거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마음이니까 말입니다. 댁이 말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할 때 벌써 하나로 바뀌어져서 죽비는 하나가 됐죠. 그러니 맞은 것은 없지만 맞은 게 있는 거죠. 생활을 벗어나서 내가 없고, 나를 벗어나서 생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부터 죽는 거, 사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나라가 움죽거리는 거, 전체가 모두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모두 응용하세요. 자기부터 알아야 세계를 알고, 세계를 알아야 삼천대천세계를 알죠. 아까 예언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언을 하자 하면 그냥 뭐 바빠서 못 견디겠죠. 하지만 예언은 해서 뭘 합니까, 그놈의 거.

사회자: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큰스님께서 지루하셨겠습니다.

큰스님: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큰스님: 그러세요? 그냥 많이도 부풀리시는데…. 하하하…. 하여튼요, 제가 부탁드릴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섯 가지만큼은 누구한테도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가지 아시죠? 죽는 거, 아픈 거,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이 다섯 가지는 제 아무리 재주가 훌륭해도 대신 못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한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에, 지금 한 철 나는 길에, 세세생생 돌아가는 거를 전체 집어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한 생에. 한 찰나에 집어 먹듯이….

>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지금 한 철 나는 길에**
> **세세생생 돌아가는 거를 전체 집어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자 한다면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문을 찾아서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즉 '학문을 따져서 책을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책을 찾아서 다니는 건, 글자를 보고 알아서 깨치려고 하는 거는 저런 문 찾아다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는 문을 찾아서, 문이 없는 문이 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 없는 문을 찾아서 성불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무척 쉬운 건데 모두들 그래요. 그냥 뭐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앉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게 그놈이 움죽거리게 하니까 하는 건데 '네놈이 주인이 돼서 움죽거리게 하는 거니까 네 몸뚱아리 네가 가지고 가라.' 이러면 아주 편안하죠, 그냥 아주! 일생이 다 편안해요, 그냥.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괴롭습니까? 왜 한 철 놀다 가는데 즐겁게 놀다 가지, 왜 그렇게 궁상으로 살다가 가야 되느냔 얘깁니다.

그리고 옷만 벗어 버리고 또 다시 옷을 입고 나올 텐데 그까짓 옷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요 다음에 아주 그냥 세련되게 샘플을 해 가지고 내가 그냥, 하하하…, 아주 거룩하게 탄생을 시켜서 나라를 그냥 휘어잡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그럴 것 없어요. 그저 춤추고 놀다 가는 거와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천천히 되느냐 일찍 되느냐가 문제지, 안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라 그냥 요렇게 들여다보다가 '아휴, 저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고통스러워. 쪼개고 쪼개고 아이고, 구찮어.' 그러면서 달아 나간다고. 그런데 화목하고 웃고 즐기면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그러자.'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요게 참 편안하겠구나.' 그러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 그런 거 봤는데요?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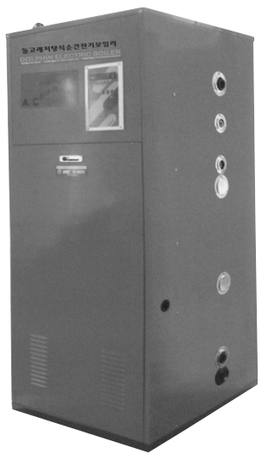
그럼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해 드린 것은 말일 뿐이니 그 뜻을 잡수세요. 말을 잡숫지 말고 뜻을 잡수세요. 옛날에 두 친구가 살았는데, 하나는 지금으로 치면 출세를 해서 나라의 국록을 먹고, 한 사람은 과거를 보려도 영 안되고 그래서 진탕 술이나 먹고 그러니까, 친구의 볼기도 때리고 온통 그렇게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그 집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말을 이렇게 할 때에도 나는요, 진짜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처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일신이 이렇게 살아온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그렇습니다. 수억겁을 거쳐서 살아올 때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보시죠? 그 처절하게 그냥 쫓기고 잡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산 채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먹히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닭 얘기 했지만, 닭이든지 뭐든지 그냥! 산 채로 탁 잘라서 그냥, 아이고! 뭐, 사시미고 뱀이고 뭐든지 그냥 턱턱 잘라서 피를 내서 먹고들 이러는데 아이, 징그러워서…, 징그러운 것보다도 그것이 바로 진화되기 전에 우리가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거쳐서 온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정원이라면 나무들과 정원이 다 생기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느라고 늦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그네들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아픔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번째가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도 어차피 먹어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죽였던 것을 사다 먹으면 되지, 왜 일부러 산 거를 죽여서까지 먹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 법문은 1995년 2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일성오피스텔 1101호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땐 어떻게 하죠?

Q 살아있다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 누나와 함께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직장도 있었지만 출가하고자 관두고 나왔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출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후 출가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달래고자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빠사나 수행의 역효과로 지금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자원봉사라도 해야 살 것 같습니다.

A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니 얼마나 상처가 깊고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셨는지요.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좋은 직장을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출가를 꿈꾸니 경제적 여유와 정신수행의 삶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집니다. 갈망이 생각에만 머물다보니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기만 하고, 결국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만으로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까지 봉사활동을 하며 기분을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젊은 남자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봉사활동은 참 많습니다. 평소 생각했던 봉사가 있다면 관련 분야 기관 등을 찾아 일을 시작하세요.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의 끈을 잇고자 힘을 내시어 저희 자비24 상담실을 방문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담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가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희망과 기쁨의 끈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Q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에 가보면 대부분 "돈 많이 벌게 해 달라" "건강하게 해 달라" 등 기복적입니다. 스님들 또한 열심히 절하고 부처님께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옳은가요?

A 한국불교의 신행방식에 대해 기복신앙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祈禱)가 불보살의 가피에 힘입어 재앙을 덜고 복을 더할 것을 기원하는 종교심으로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 진리를 깨달아 바른 마음, 바른 행으로써 인간과 국토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기도가 갖는 보편적인 의미와 불교의 근본 가르침 사이에 일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 행으로 닦아 감으로써 본래 완전한 진리의 공덕이 자신과 환경에 나타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진리를 알면 생명력을 속박해 나타났던 병도 사라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속박해 가난했던 빈궁도 사라지게 됩니다.

온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이론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주법계에 뜻이 전달돼 이루고자했던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뤄주기 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발원하다 보면, 신행생활 속에 정화력이 포함돼 이루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스스로의 마음을 원만구족한 불보살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佛性)을 회복해 일체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마음을 맑게 하고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러한 뜻과 이치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소원 빌면 이루어지나요?
기도란 기복 아닌 본래불성 회복하는 길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청각장애인 자활… 사회적 기업

행복법당 탐방
광림사 연화원


연화원 원예치료교육 수강생들이 졸업 시즌을 맞아 만든 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다. 연화원은 원예치료, 장애인 직업재활뿐 아니라 우리어린이집 · 요양보호사 교육 · 호스피스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사회적응 돕고자 1993년 연화원 개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은 비장애인 인식개선부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검지손가락을 코에 갖다 댄 뒤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들며) 어머니, 아버지요."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집중해 그대로 선생님을 따라 만들어보세요. 꽃다발을 엮을 때 철사로 하면 안 돼요. 꽃들도 생명이 있어 아파하거든요. 테이프로 살살 감아주세요."

해성 스님이 장애인 수강생들에게 직접 수화로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가르치며 꽃다발 만들기를 도와준다.

서울 석촌동에 자리 잡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의 화훼공예 작업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원예치료수업에서 꽃꽂이, 압화(押花), 꽃다발 제작이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장애로 언어 · 인지 · 지적 발달에 지체현상을 가져와 지적인 수준과 이해력이 저하되기 쉽다. 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실력을 발휘하고 개발하고자 문화센터나 지역의 복지관을 찾아도 수화통역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직업 및 교양활동을 한다는 것은 청각장애인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됐다.

원예치료는 우울증 ·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서불안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원예활동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와 작품 활동을 통한 자기주장과 발표력향상은 물론 꽃과 식물의 생장 · 발육 · 수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예기술을 익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93년 개원한 연화원은 교양강좌, 운전 · 한글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2003년에는 '꽃사랑 소리사랑'이라는 꽃가게를 열어 청각장애인들의 자활을 지원해 서울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연화원은 원예치료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장애인들이 직접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꽃꽂이 수업에 참여한 고근인(46 · 여)씨는 "꽃꽂이에 관심이 많아 이곳저곳에서 몇 번 배우다가 연화원을 알게 됐다. 강사의 설명을 바로 수화로 통역해주니 이해하기가 쉽다"며 "이 곳에서 꽃꽂이를 배우니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앞으로 꽃꽂이 자격증을 따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강사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한 연화원은 2009년 2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장애인들이 고용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했다.

현재 10여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연화원에서 압화(꽃누름) 및 화훼교육을 통해 관련 상품을 생산 · 판매하고 있다. 시계, 액자, 액세서리 등에 압화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은 그 상품가치가 높아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230개 우수 중소기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화원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09 제1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재외동포 사업가들에게 압화 상품의 예술성을 널리 알렸다.


불교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제작한 압화 작품. 광배는 산딸나무 꽃잎으로, 얼굴은 백장미꽃잎, 목 · 가사 부분은 감나무와 떡갈나무 잎으로 꾸몄다.

연화직업재활원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노동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돼야만 최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매출이 증가해야 그만큼 고용가능 인원수도 증가하고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성 스님은 "압화 제작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디자이너, 사업가, 압화 강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 앞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통한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려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불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02)2201-5831

이나은 기자


심우도를 액세서리 보관함에 표현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결혼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번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秘書가 될 것이다. 특히 여자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 올 力作이다.



이젠 천기를 누설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 신국판/청산 김성진 지음/35,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Ⅰ권 880쪽 Ⅱ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신년맞이 현불샵 특별전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현불샵 4종 특가 SLAE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대형 size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수의 등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전통오동나무 앤틱원목 수납장
(압축 참숯부착) – 슬림형



- 재질 : 오동나무(원목),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규격 (가로×세로 ×높이) : 42×41×90 cm
- 서랍 (내부) : 32×32×14 cm
- 전통오동나무 원목수납장 용도
  · 아이들 옷, 기저귀,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어른용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욕실 수건 등의 수납

■ ~~217,000원~~ → 167.000원 (23%DC)

전통오동나무 참숯 850 서랍장
(압축 참숯부착)



- 재질 : 오동나무(원목),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규격 (가로×세로 ×높이) : 85×14×50 cm
- 서랍(내부) : 32×32×14 cm
- 전통오동나무 춤숯 서랍장 용도
  · 아이들 옷, 기저귀,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어른용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217,000원~~ → 167.000원 (23%DC)

희담석 1인용 매트 (슈퍼싱글 · 싱글)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면(코팅처리)
- 크 기 : 1000mm × 2000mm
- 무 게 : 약 11kg
- 사용처 :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 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 제품설명 : 희담석의 가장 큰 특징은 상온에서 탁월한 에너지 방사 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도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립니다.
- 세탁법 : 맑은 물에 10여 분간 담가 희석 알갱이가 물을 머금으면 울세제를 조금 풀어 손세탁 하여 그늘 진 곳에서 건조 시킵니다.

*주의: 처음부터 세제를 넣으면 희담석 알갱이에 세제가 스며들어 좋지 않습니다.



■ ~~400,000원~~ (슈퍼싱글)
344,000원 (14%DC)
■ ~~350,000원~~ (싱글)
301,000원 (14%DC)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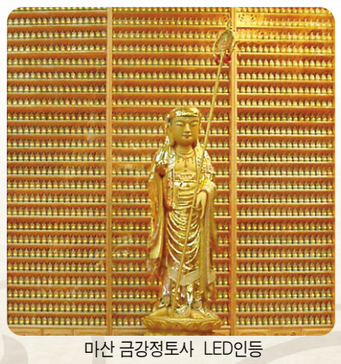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